

2017 SPRING
VOL. 235
WOW CHEONGDAE

아이작

2017 SPRING VOL. 235

CHEONGJU UNIVERSITY

작고 아담한
의자에서 잉태된
생각과 고민들이
청주대학교 설립의
밀알이 되었듯
70년이 지난
오늘 그 자리에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공급니다



형제의 소박한 의자

설립자 김원근·김영근 형제가 생전에 사용했던 작은 나무 의자를 발견한 것은 단행본 <위대한 평범>의 한 페이지에서였다. 설립자 형제가 남긴 대부분의 유품이 그렇듯 의자는 소박하고 검소하다. 등받이도 없는, 작고 단단한 의자처럼 설립자 형제의 위대한 건축정신은 청대인 모두의 가슴에 유물처럼 남았다.



설립자 김원근·김영근 형제가 사용했던 나무 의자



02

열린 총장실
다시, 가슴 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DEER & WID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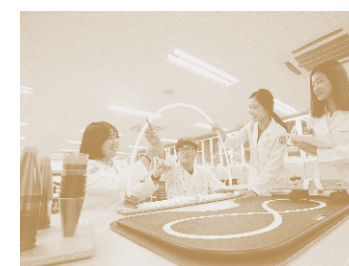
사람이 길이다1
육군 포병학교 교육여단장
황천용 동문



22

학생이 미래다1
창업동아리 500°C 대표
이승호 학생

UNIQUE & VARIOUS



28

미래를 읽는 대학
젊은 기운과 열정이 만들어낸 상승기류.
보건의료대학의 밝은 내일을 만든다

OLD & NEW



06

70년의 발자취
70년이라는 시간의 걸 위에
眞心이 지어 올린 최고의 교육환경



18

사람이 길이다2
서울연극협회 회장
송형종 동문



23

학생이 미래다2
진로나침반 프로그램 Career Compass 참가자
김한얼 학생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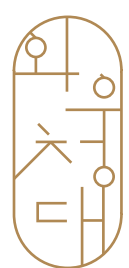
지역과 어깨동무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청주시 시니어들의 정다운 동행이 되다

WOW NEWS



40

Headline News
획기적 학사구조개편 단행 외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7 SPRING VOL. 235

청주대학교 소식지 (와우청대)의 '와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우청대
2017년 봄호 (통권 235호)
발행일 2017년 5월 12일
발행인 정성봉
편집인 이상철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취재 이은형
가격 5,000원



10

화보로 보는 70년史
공간을 기율여 학교를 세우니,
의로운 교육을 펼친 정성이 자극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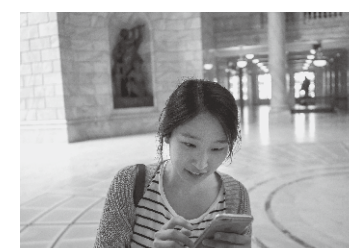
20

사람이 길이다3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
박호표 교수



24

학생이 미래다3
IF 디자인 어워드 2017 본상(Winner) 수상자
문형욱·이정현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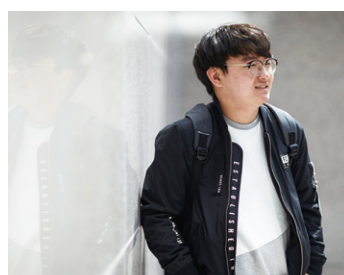
32

나의 세계문화 견문록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문헌정보학과 백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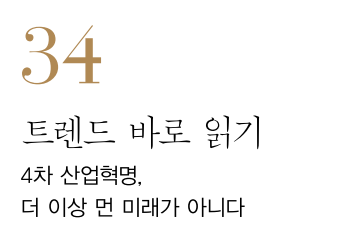
42

News Brief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 개최 외



25

학생이 미래다4
신입생 입학생 대표 선서자
박선우 학생



34

트렌드 바로 읽기
4차 산업혁명,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46

People News
김경식 교수, 필리핀 바세코 지역 해외봉사활동 외

다시,

가슴 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문즉답.
정성봉 총장에게
듣는다



✦ 이제 곧 개교 70주년을 맞게 되는 청주대학교 캠퍼스에 새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특히 리모델링 되어 3월에 재개관한 중앙도서관이 가장 눈에 띕니다. 2017년은 우리 청주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청암, 석정 형제분께서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을 세우신 것이 1947년이었습니다. 광복 1호 대학으로 출범한 우리대학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일흔 성상(星霜)을 씩 없이 달려왔고, 오늘날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총장에 취임하면서 “학생이 다니고 싶은 대학,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노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저의 각오와 때를 같이 해 중앙도서관이 대단한 변화와 혁신으로 재탄생 되어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되어 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재개관은 많은 구성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IT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서관 공간 전체에 접목한 신개념 도서관 안에서 부디 청주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무척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저 또한 기쁘고, 캠퍼스 안에서 가장 아끼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 최근 청주대학교는 제2의 창학을 위해 종합적인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특성화 생태계 조성, 학생지원 강화와 커뮤니티형 캠퍼스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계획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청권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 확립, 대학의 생존,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청권의 대표사학으로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가치, 지역산업 기반, 학문·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4개의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총복 6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ICT융합산업과 태양광신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첨단과학 분야, 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기여하는 BT/의료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대·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直指)의 고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문화산업 활성화와 미래지식산업의 메카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디자인콘텐츠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지난 4월 일주일간 열렸던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사회진출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과 진로설계를 위해 학년별로 테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했습니다. 자기주도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주관을 따로 마련해 진행해 보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학교 측의 판단에서입니다. 1학년은 역량진단, 비전설계, 학습동기부여, 대학생활적응훈련, 토익 맛보기 등이 진행되고, 2학년은 ‘나’ 발견하기, 체계적 자기관리, 전공·적성개발, 진로목표설정, 실천계획 수립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3학년은 직업흥미 발견, 진로역량 개발, 진로목표 확인, 기업탐색, 현장문제 해결력, 비즈니스마인드 함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적성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학년은 현장문제 해결력, 직업기초역량, 취업전략 습득, 셀프 리더십, 취업실전 프로그램 등이 집중 운영됩니다. 이렇게 학년마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 말고도 비전설계, 대학생활, 소통, 취·창업역량 향상 등의 주제로 열린 명사들의 특강도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잘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대적이면서 획기적인 학사구조개편 단행입니다. 단과대학을 8개에서 6개로, 전공을 62개에서 49개로 축소했고, 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6개 학과도 신설된다고 들었습니다. 학사구조개편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생존과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1년 4개월여 동안 대내외 의견 수렴과 학내 주요 경영진 인터뷰, 1·2차 공청회, 단과대학별 미팅, 학과별 면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학사구조개편안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우리대학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수요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간 갈등도 있었지만, 모두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주셨습니다.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 앞으로 청주대학교에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70년 전, 청주대학교가 품었던 위대한 꿈을 되뇌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변화시켜왔는지를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가슴 떨림으로 새로운 7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청주대학교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70년의 빛나는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하며 모교의 이름을 빛내주시는 동문님들! 제자를 향한 무한 애정으로 열정을 다해 인재를 키워내시는 교수님들! 최선을 다해 젊은 날의 도전을 아끼지 않는 학생들! 학교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는 직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다니고 싶고, 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저 또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대학의 건학정신을 가슴에 담고 저부터 가슴 뛰는 날들로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준비하고 열어가겠습니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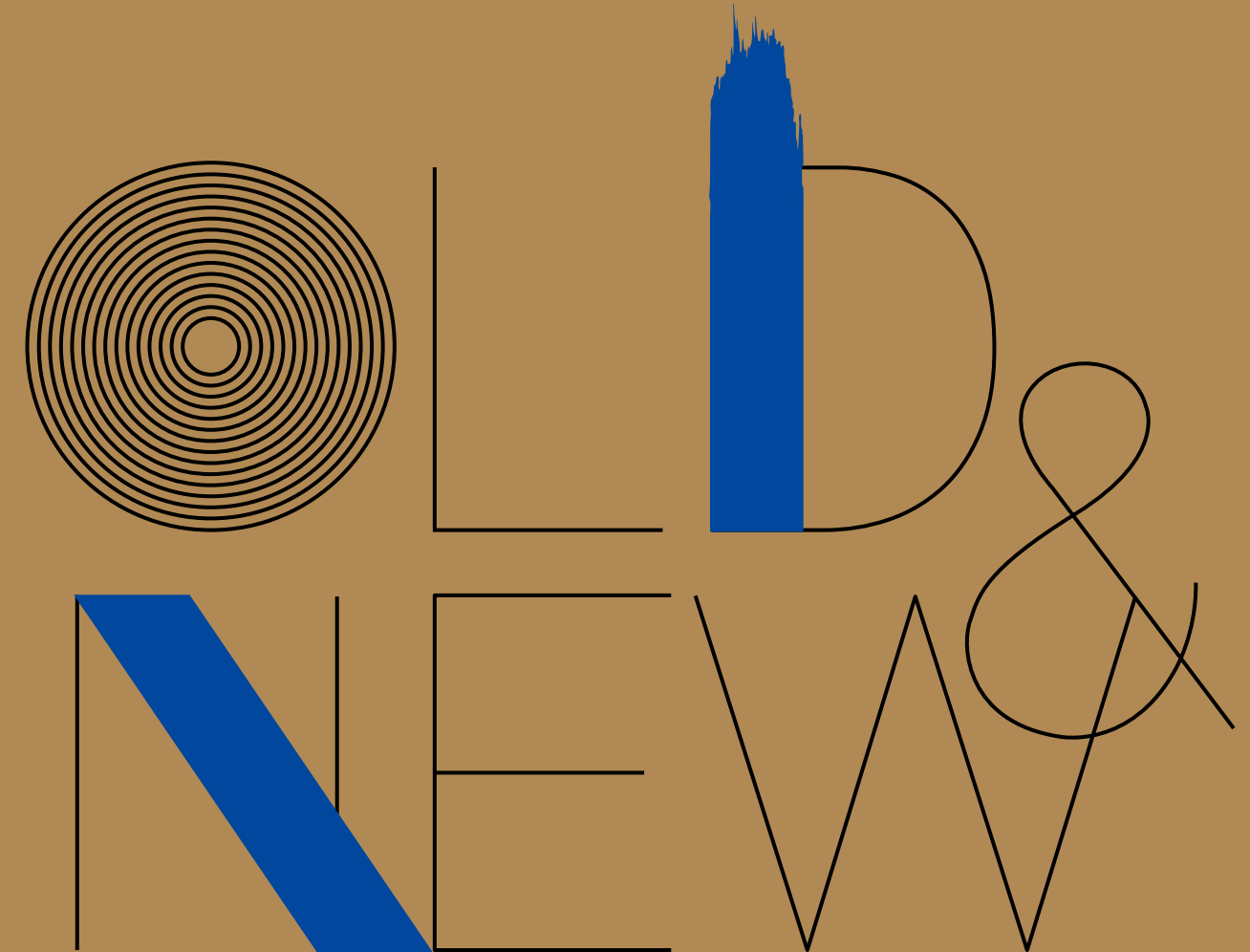
꿈을 하늘에 걸고

꽃눈은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땅속 기운을 끌어올렸고, 뿌리부터
 차오른 물기와 양분이 차고 넘쳐
 마침내 어여쁜 꽃을 피워냈다.
 그 후로 한동안 찬란한 빛을 하늘에
 띄워 놓고, 굽은 가지 아래 오가는
 이들에게 꽃 그림자 향기로 인사를
 건넸다. "나처럼 한번 해보겠어?"
 낮게 드리워진 꽃들이 나에게 방긋,
 "하늘에 꿈을 걸어볼게!"
 나는 까치발을 들며 꽃들에게 활짝.

꿈을
 하늘에
 걸고

OLD & NEW

전통과 미래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써내려온 위대한 70년의 역사 위에
 청주대학교 100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봅니다.



개교 70주년 기획 시리즈
 민족사학 70년의 길, 위대한 역사가 되다
 제1편, 교육환경

06
 70년의 발자취
 70년이라는 시간의 걸 위에
 真心이 지어 올린 최고의 교육환경

10
 화보로 보는 70년史
 공간을 기울여 학교를 세우니,
 의로운 교육을 펼친 정성이 지극하구나!

제1편
교육환경

개교 70주년 기획 시리즈
민족사학 70년의 길,
위대한 역사가 된다

70년이라는 시간의 걸 위에 眞心이 지어 올린 최고의 교육환경



“사람은 옳게 살아야 한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거짓말 해서도 안 되느니라.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느니라”는 부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설립자 김원근, 김영근 형제가
민족사학의 문을 연 70여 년 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배움과 나눔의 정신은
청주대학교의 씨앗이 되고
숲을 이루었습니다.
동전 한 닢이라도 더해
최고의 배움터를 만들고자 했던
그때의 사명과 정성이 차고 넘쳐
최고의 교육환경을 이루어냈습니다.

2017년 청주대학교 개교 70주년의 해를 맞아 그간 우리대학이 걸어온 민족사학 70년의 길을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간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우리대학의 지난 역사를 정리해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성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대학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총정리해 본다.

우리대학은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형제분이 맨손 행상을 통해 모은 전 재산으로 세운 민족사학이다. 1947년 6월 6일 청주상과대학을 설립한 후 6.25 동란의 수난을 겪으면서도 착실히 성장을 거듭하여 198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 8개 단과대학 62개 학과, 4개 대학원의 규모를 갖춘 명문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70년의 역사를 일구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4년제 대학으로서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의 위상을 지켜온 우리대학은 오랜 전통을 보전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최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인재들을 위한 변화를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다.
종합대학으로서의 체제와 규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초창기 시절, 우리대학은 개교 10주년과 동시에 신축 교사 준공식을 거쳐 내덕동 캠퍼스로 이전했고, 본격적인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에 집중했다. 개교부터 1980년 이전까지는 박물관, 청석관, 인문대학, 체육관, 이공대학, 사범관 등을 연이어 준공하였고, 이후 2000년까지는 종합대학 승격과 함께 6개 단과대학 체제를 갖추고 비약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2000년 이후에는 대천수련원, 새천년종합정보관, 예술대학 신관, 인터내셔널 빌리지, 석우문화체육관, 중앙도서관 등 현재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준공 및 리모델링 형태로 완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 취·창업 및 학과특성화 지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신축 및 개축된 모든 건물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정부기관과 대학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다른 대학과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대학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한 대학경영과 실천으로 미래형 캠퍼스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발전계획(CJU 2030) 아래 다양한 가치와 철학이 공존하고 존중 받는 캠퍼스, 인간과 자연,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 안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924 1955

수동 390번지에서 움튼 민족 교육, 교육과 문화의 도시 청주를 태동케 하다

일제강점기였던 1924년 4월, 민족 교육 선각자인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선생이 교육구국(教育救國) 정신으로 설립했던 대성보통학교는 청주대학교의 뿌리다. 1947년, 당시 인구 5만에 불과한 청주에 청주상과대학을 세워 우리민족의 보다 먼 미래를 준비했으며, 1951년 청주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훗날 청주가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 1924. 04. 12 학교법인 대성학원 설립 인가
- 1946. 11. 18 청주상과대학 설립 인가
- 1947. 06. 06 청주상과대학 개교(수동 390번지)
- 1951. 07. 17 청주대학으로 교명 변경



1945년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했으나 새 나라를 건국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이 크게 부족함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던 청암·석정 선생은 애국애족을 무언의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대학설립에 착수했다. 이때 대학설립 기본재산으로 김원근 선생이 논밭, 대지, 임야 등 52만 6,310평, 김영근 선생이 논밭 13만 1,834평을 기부했다. 또한 1947년까지 김원근 선생이 현금 550만 원, 청주상과대학설립기성회가 현금 2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약정하고, 미군정청 문교부에 대학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주대학교 60년사〉중에서



1956 1979

내덕동에 새로운 터를 잡고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개교 10주년을 즈음한 1957년에 우리대학은 내덕동 우암산 기슭에 새 교사를 신축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속에 캠퍼스를 새롭게 꾸리기 시작했다. 김원근 이사장이 새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감독을 했을 정도로 정성을 들여 캠퍼스를 설계했다. 학문의 전문 분야를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 학부를 늘려 나갔으며, 성장을 거듭했다. 1955년 문교부가 당시의 대학 설치기준령을 대폭 강화시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38개 사립대학 중에서 그 기준에 도달한 대학은 청주대학과 세브란스 의과대학(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뿐이었다. 1967년에는 박물관이 개관했고, 1970년대에는 청서관, 인문대학, 이공대학, 사법관(현 사회과학대학과 사법대학), 학군단, 체육관 등을 준공했다.

- 1957. 06. 06 개교 10주년 기념식 및 신축교사 준공식 거행
- 1957. 10. 27 내덕동 캠퍼스로 이전(청주시 내덕동 36번지)
- 1967. 11. 10 박물관 개관
- 1974. 05. 05 청서관 준공
- 1976. 05. 05 인문대학 준공
- 1976. 12. 31 학군단 증축공사 준공
- 1977. 06. 07 박물관(청정관) 준공(1층)
- 1977. 12. 25 박물관 준공(2층)
- 1978. 07. 20 체육관 증축 준공
- 1978. 12. 22 이공대 준공
- 1979. 12. 15 사법관 준공(현 사회과학대·사법대 건물)

민족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원천은 교육에 있으며 민주국가의 흥망성쇠는 곧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있는 것이다. 실로 민주주의 교육이야말로 그 국가와 민족이 번영하기 위해 절대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청암 김원근 선생의 개교 10주년 기념사 중에서



1980 2000

종합대학으로의 탄탄대로를 걸으며 비약적 성장의 시대를 열다

1980년,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과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이 시기에 6개 단과대학 체제로 학과편제가 이루어졌고, 우리대학은 이에 따른 비약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또, 도약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정비했으며, 해외교류를 더욱 확대하면서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다방면으로 갖춰나갔다. 이처럼 규모의 변화와 확장에 발맞춰 경상대학 강의동, 교수연구회관, 중앙도서관, 상징탑, 학군단 건물, 종합강의동, 청서관, 예술대학, 음악관, 예지관, 이공대학 별관, 학생회관, 종합운동장 등 대부분의 대학 건물이 이 시기에 차례로 준공되었다.

- 1980. 10. 02 종합대학고 승격
- 1981. 06. 05 경상대학 강의동 준공
- 1982. 03. 20 교수연구회관(현 연구동) 준공
- 1984. 06. 04 중앙도서관 신축 개관, 상징탑 제막
- 1986. 05. 27 학군단 건물 준공
- 1986. 09. 02 종합강의동 준공
- 1986. 11. 11 청서관(청정관) 개관
- 1989. 10. 23 예술대학 준공
- 1990. 07. 31 음악관 준공
- 1991. 04. 29 예지관 준공
- 1992. 12. 23 이공대 별관 증축 완공
- 1994. 05. 03 인문대학 증축 완공
- 1994. 09. 14 학생회관 준공
- 2000. 11. 02 종합운동장 준공

예술대와 음악관 그리고 기숙사의 건립으로 제2캠퍼스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제1, 2캠퍼스를 잇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정문에서 내덕동 시내를 거쳐 예대에 이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강의동에서 사회과학대, 이공대, 학생회관, 학군단을 거쳐 제2캠퍼스에 이르는 남북관통 구내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1991년 6월 10일 이공대학 신관 착공과 함께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해 1998년 대학문화관에서 예술대까지 차도 폭 10m, 보도 폭 3m 너비의 직선도로가 개통되었다.

-〈청주대학교 60년사〉중에서



2001 2017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새로운 해답, 그린과 디지털에서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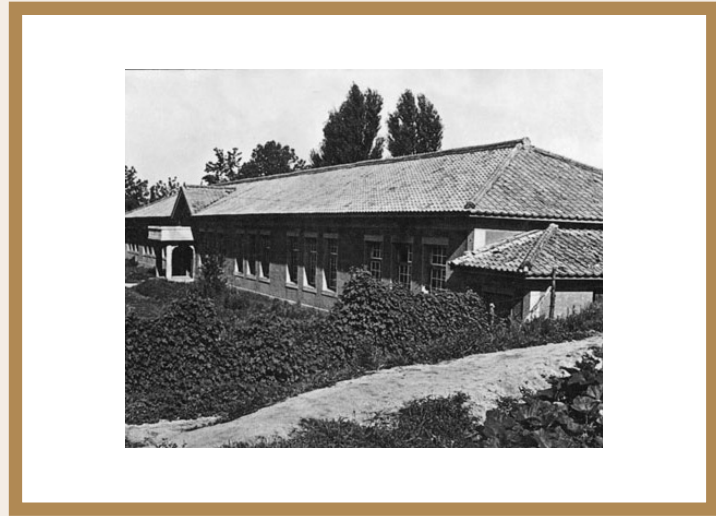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대학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 실천해왔다. 이 시기에 새천년종합정보관, 우암마을, 사회과학대학·사법대학, 예술대학 신관, 미래창조관, 경상대학·교수연구동, 석우문화체육관, 중앙도서관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준공 및 리모델링 형태로 완공되었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국 1위 대학답게 국제학사와 외국인교수 아파트, 국제교육센터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빌리지를 구축하는 등 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 최근에는 350억 원을 투입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최첨단 디지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첨단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대학의 중요한 교육환경적 특징 위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이 빛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건물과 공간들의 물리적 변화와 교육적 측면의 변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미래형 캠퍼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중부권 최고의 대학을 향한 마스터플랜에 이어 커뮤니티형 캠퍼스 조성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진행 중이며, 진정한 학생중심 대학을 위해 교육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01. 02. 09 대천수련원 준공
- 2003. 09. 04 새천년종합정보관 준공
- 2004. 04. 29 우암마을(기숙사) 개관
- 2004. 12. 22 제3강의동 리모델링 공사 완공
- 2005. 03. 08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완공
- 2005. 11. 04 사회과학대학·사법대학 신축 및 설립자기념관·박물관 재개관
- 2006. 11. 13 사회과학대학·사법대학 준공
- 2007. 12. 21 예술대학 신관 준공
- 2007. 12. 28 인문대학 리모델링 공사 완공
- 2008. 03. 05 공예관 준공
- 2008. 12. 05 대학원·법과대학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08. 12. 29 인터내셔널 빌리지 준공
- 2009. 02. 09 학생군사교육단 건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09. 11. 26 미래창조관 신축
- 2010. 06. 25 경상대학·교수연구동 준공
- 2013. 12. 02 석우문화체육관 준공
- 2017. 03. 02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



제1편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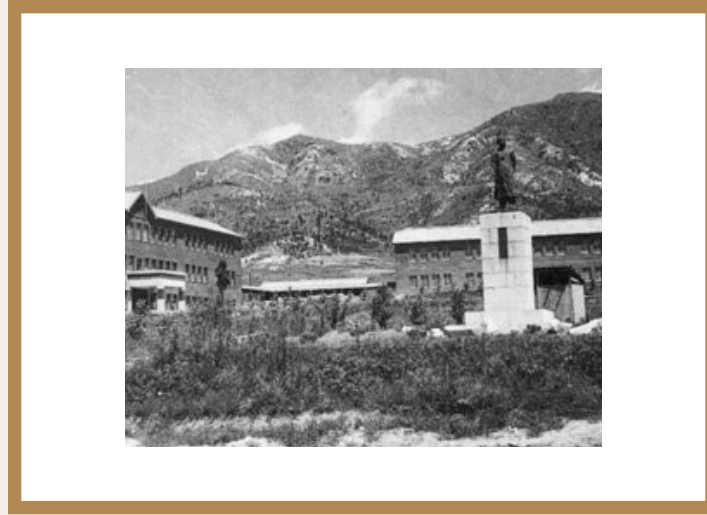
개교 70주년 기획 시리즈
민족사학 70년의 길,
위대한 역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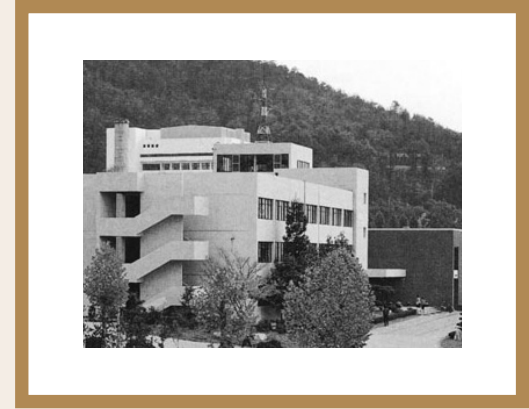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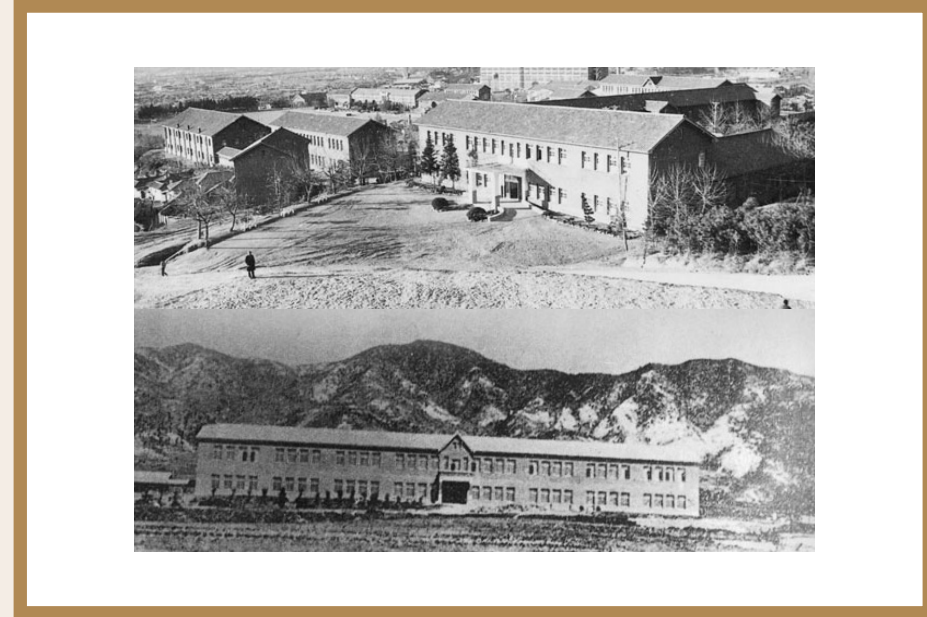
2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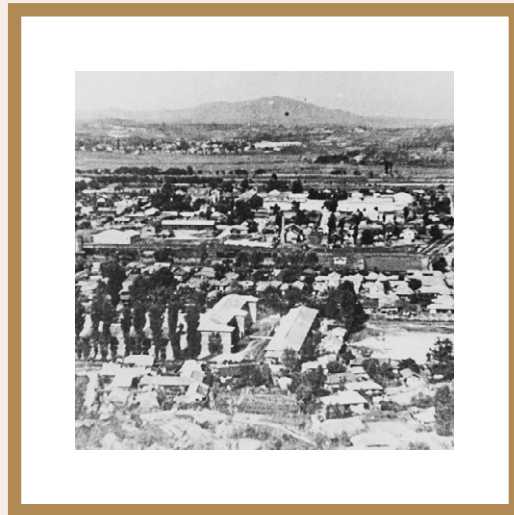
미루나무
울타리 옆에
본관을 짓고,
나라를 세우는
교육으로
수동(壽洞)이
뜨거워졌네!

곳간을 기울여 학교를 세우니, 의로운 교육을 펼친 정성이 지극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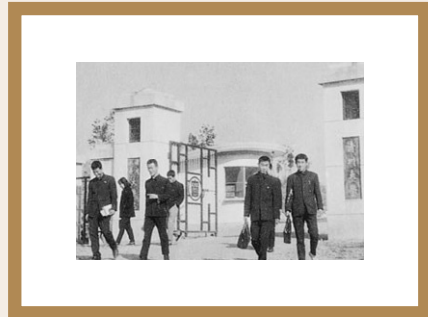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광복 1호 대학, 청주대학교의 70년



3



4



5



4

청암과 석정 형제분의 울곧은 신념과
실천으로 쌓아 올린 교육구국의 시간은
70년의 세월을 머금은 붉은 벽돌마다
역사로 새겨져 오늘의 청대인과
마주하고 있다. 광활한 벌판이 캠퍼스
터가 되고, 기둥과 지붕이 올려져
진리의 상아탑을 이루면서 청주대학교의
지성들은 불꽃처럼 피어 올랐다. 역경을
이기고,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워 않고,
더 큰 세상을 꿈꾸었던 그날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약속했던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청주대학교는
광복 1호 대학으로서 대한민국 대학사의
초창기 한 부분을 선도해왔다.

1 1942년까지 대성보통학교 교사였던 청주상대 본관(수동 399번지)은 50년 초 2층으로 증축되었고 1960년대부터 대성여중·고 건물로 쓰이다가 1996년 여중 본관이 건립되면서 철거되었다. 2 청주상고 교문에 내건 청주대학 현판. 왼쪽이 상고본관. 뒤로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청주대 캠퍼스다. 60년대 초까지 대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 상고 교문을 함께 사용했다. 3 신축된 강당·도서관. 1954년 3월 신축된 140평 규모의 강당은 대성여중 체육관으로 현존하고 있으나 왼쪽의 도서관(12층 182평)은 90년대 초 철거되었다. 4 1950년대 6·25 직후의 청주대 수동 교사. 미루나무 울타리 옆 2층 건물이 청주대 본관과 후관이다. 오른쪽 운동장 끝에 70년대 초 대성여상 건물이 들어서 여성교육의 요람을 이루었다. 5 1960년대 말 청주대학교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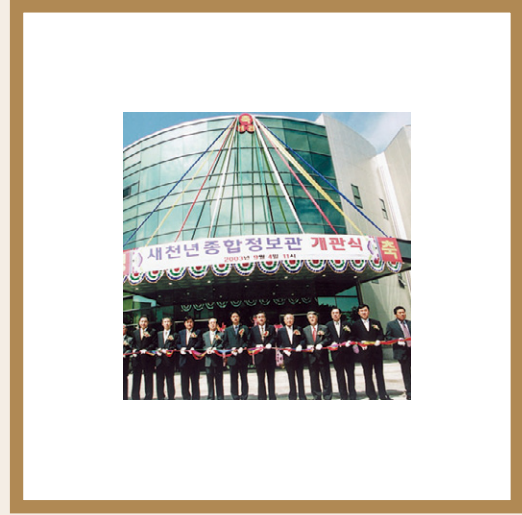
1 설립자 동상 앞에서 바라본 내덕동 캠퍼스 전경 (1957년) 2 1974년 완공된 새 본관을 청석관으로 명명했다. 3 (위) 60년대 말 현 청석관(본관) 자리에서 내려다 본 청주대학.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1974년 중앙도서관 신축과 함께 철거된 과학관이다. (아래) 신축교사는 서향동 2층 건물인 별관이 최초로 준공된 후 남향동 3층 본관, 강당, 도서관 건물이 차례로 탄생하여 청주대 내덕동 교사가 조성되었다. 그중 첫 번째 신축된 별관 2층 건물 (1957년) 4 동문회의 협찬으로 건립된 새 교문 준공식 (1976년)

1981년 종합대학 승격을 계기로 비약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던 청주대학교는 우암산 기슭을 캠퍼스로 만들어 교육도시 청주의 상징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교세 확충과 내실을 다지면서 종합대학에 맞는 교육체제와 환경을 갖추는 작업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우암산 기슭에
배움의 터전을 넓히니,
민족의 자랑스런
대학에 맥박이
고동치다!**



1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제막된 상징탑. 종합대학 승격과 더불어 산업디자인학과 김두영 교수가 디자인한 대학의 심벌마크를 조각가 최기원 홍익대 교수가 작품화했다. 2 현재 예술대가 들어선, 본 캠퍼스 북쪽 울랑동 골짜기의 1980년대 모습 3 (위) 1994년 웅장함을 드러낸 학생회관 원경. 멀리 뒤편이 예술대 건물, 왼쪽이 종합운동장 부지 (아래) 1989년 착공된 예술대 골조 공사 현장 4 약 50년 만에 현대적 시설로 다시 태어난 청주대학교 대천수련원 전경 (2001년) 5 중앙도서관 2층에 개관된 73.5평 규모의 전자정보실.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위성방송 시청, 전자 세미나실 등의 첨단 시설을 갖추어 사이버 도서관 시대를 앞당겼다. (1998년) 6 친환경적으로 준공된 국제적 규모의 종합운동장 확장 개장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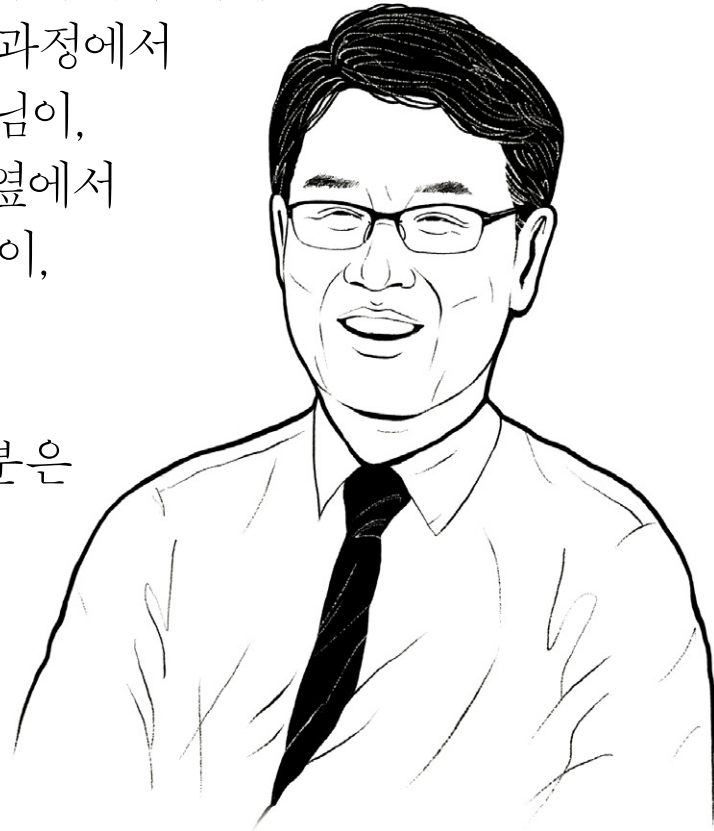
1 아파트 개념을 도입한 대규모 기숙사, 우암마을이 2004년 3월 문을 열었다. 2 제2캠퍼스 현장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있는 김윤배 총장 (2004년) 3 청주대학교 정보화의 중심이 된 새천년종합정보관 개관식 (2003년) 4 2017년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전경 5 지역 주민의 새로운 문화체육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석우문화체육관 전경 (2013년) 6 올해 재개관한 중앙도서관 외부 전경 및 상징탑



**제2창학을 위한
새로움을 이어가니,
그린 캠퍼스로
미래를 만나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속에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대학교는 구성원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왔고, 그 결과 청주대학교 캠퍼스는 인간과 자연, 전통과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롭게 올려지고 고쳐지는 건물마다 친환경, 최첨단, 학생중심, 자연과 사람, 소통과 나눔의 가치가 더해졌다. 또한, 캠퍼스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청주대학교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앞서나가는 지속가능한 그린 캠퍼스로, 첨단 기술을 입은 스마트한 미래형 캠퍼스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 얼마 전 대학 1학년 때 헌법을 가르쳐 주셨던 김계환 교수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전화하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갑자기 유명을 달리 하시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 봄에는 학부는 물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로 이끌어주시던 정용태 총장님이, 재작년에는 고시반 지도교수로 4년을 옆에서 가르치고 격려해 주시던 어인의 교수님이, 그 앞에는 상법을 가르쳐 주시던 홍신희 총장님이 타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절의 은사님들 대부분은 세상을 뜨시고, 뉴질랜드로 이주하신 김윤구 교수님만 생존해 계시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은혜만 입고 갚지 못한 채 보내드리니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뿌리가 70년대 중반부터 인연을 맺은 대학 은사님들의 가르침과 격려에 있음에, 어찌 세월이 이렇게 빠르단 말입니까. 저 또한 60이 넘었으니 이제부터는 받은 사랑 후배들에게 물려주며 대를 이어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다짐하는 봄날 아침, 활짝 핀 벚꽃이 그 화사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유재풍 동문(법학과 76학번)이 그때 그 시절 은사님들을 추억하며

DEEP & WIDE

청대인의 깊고 넓은 삶의 궤적 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인연, 세상을 향한 무한한 열정과 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 청대인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와우청대> 편집팀에서는 '共感,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에 실릴 짧은 편지글을 공모합니다.

동문,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_ 청대인이 또 다른 청대인을 대상으로 보내는 짧은 편지글 분량_ A4 기준 반 페이지 이내 마감_ 6월 20일(화요일)까지

기타_ ① 본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② 일러스트 작업에 필요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보내실 곳_ mybloomy@naver.com 문의하실 곳_ 02. 3142. 7373

16
사람이 길이다 제1장
육군 포병학교 교육여단장
황천용 동문

18
사람이 길이다 제2장
서울연극협회 회장
송형중 동문

20
사람이 길이다 제3장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
박호표 교수

22
학생이 미래다 1
창업동아리 500°C 대표
이승호 학생

23
학생이 미래다 2
진로나침반 프로그램
Career Compass 참가자
김한얼 학생

24
학생이 미래다 3
iF 디자인 어워드 2017
본상(Winner) 수상자
문형욱·이정현 학생

25
학생이 미래다 4
신입생 입학식 대표 선서자
박선우 학생



하루를
온 우주처럼
살아온

청주대학교
최초의 별

황천용 동문
공업경영학과 82학번,
육군 포병학교 교육여단장

“군인의 길은 단거리인 동시에 마라톤입니다. 어느 한 순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보직이 주어지면 단거리에서 최선을 다하듯이 달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라톤처럼 긴 코스를 달리고 있는 내가 보이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우리대학 동문 가운데 최초로 장군 진급자가 탄생했다. 31년간 군인의 길을 걸어오며 대한민국 육군 포병 발전의 역사도 함께 써 내려온 그를 전라남도 장성 포병학교에서 만났다. 황천용 동문은 강렬한 하나의 별이 그려진 깃발 옆, 철모와 방탄조끼가 이순신 장군의 갑옷처럼 놓여져 있는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31년 군인의 삶에 주어진
준장의 무게

군인으로 31년. 통일이 되면 '내 고향 평안도'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군인의 길을 선택한 젊은 청년이 군인의 커다란 시계 안에서 지금껏 두뼘뼘 거친 그 길을 걸어왔다. 1986년 7월 26일, 학사장교 6백 8기로 경북 영천에서 소위로 임관하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장교가 되겠노라 외쳤던 그 다짐은 큰 메아리가 되고 산이 되어 어느새 준장의 자리에 그를 올려놓았다.

“아버님과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도 그랬지만, 첫 부대에서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 제 능력을 인정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군인으로 살아도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알만 보고 달려왔지요. 성실하게 역할을 해낸 만큼 인정해주는 대한민국 군인이 자랑스럽고, 또 내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장교를 선택했던 순간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황천용 동문은 뛰어난 군사적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합동화력 및 포병전력 분야에 육군 내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지휘관의 역할을 워낙 좋아했고 누구보다 잘 해내온 그이기에 포병학교 교육여단장으로 보내는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는 교관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바꾸었다. '알아야 한다'는 포병학교 구호처럼 교육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관들의 실력을 촘촘히 살펴보고 키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등병부터 대령까지 1년에 7천여 명의 교육생들이 포병학교에 옵니다. 교육생들에게 포를 다루는 기술인 포술과 전술을 가르치고, 또 교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포를 다루기 위해서는 좌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해 통신,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4~5단계를 고르게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잘 받아 자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게 도와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365일을
꼼꼼히 기록하는 군인

황천용 동문은 부대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에서 포병학교의 막강한 실력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맞춤형 표창'이다. 메모를 잘하는 사람, 전술노트를 잘 정리한 사람, 취사반에서 조리 실력을 발휘한 사람 등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든 잘 해내는 부대원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귀하게 표창을 한다. 이런 '생생한' 표창은 부대원들의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휘관으로 수많은 인원을 통솔하면서 그동안 인명 사고 한 건 없이 꾸러울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부대원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 소통하는 그의 친화력 때문이다. 또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그의 다이어리 속 메모처럼,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천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으로 이어져 시너지효과를 창출케 했다.

“30년 전에 같은 부대에 있던 육사장교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 알고 있는 것들 모두 수준 이상이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보다 딱 네 배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네 시간 더, 네 번 더. 그리고 실천했지요.” 네 배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써 내려가고 복기했던 노트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안 그는 실력으로 중무장됐다. 이 같은 집요함과 실천력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묻는 말에 황천용 동문은 강의실 맨 앞에서 분필 가루를 받아 마시며 교수님 말씀을 따라 적었던 대학시절을 언급했다. 누구보다 더 잘해내고 싶어서 강의내용을 다시 정리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던 그 악착같은 실천 덕에 4년 동안 학과 수석을 한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다.

“세계 작은 수첩은 권총, 중간 수첩은 소총, 큰 다이어리는 박격포와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 최선을 다하려면 보니 메모를 꼼꼼히 했고, 이젠 제 삶과 뗄 수 없는 오랜 습관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단거리인 동시에 마라톤입니다. 어느 한 순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보직이 주어지면 단거리에서 최선을 다하듯이 달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라톤처럼 긴 코스를 달리고 있는 내가 보이게 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나의 모교와 후배들에게

황천용 동문에게 대학시절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80년대를 캠퍼스에서 보냈던 그 시절 누구에게나 그렇듯 대학은 그에게 낭만이자 따스한 추억이다. 검은 교복만 입던 몸에 청바지로 멋을 내고, 윈 없이 머리로 길러왔다. 잘 안 풀리는 문제는 교수님을 쫓아다니며 끝까지 풀이바 달라고 조르기 일쑤였다. 언제 또 그렇게 공부를 할까 싶을 정도로 제대로 공부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셨던 교수님들, 함께 서로의 꿈을 보듬어주었던 동기, 선배들의 힘을 받아 지금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어느새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모교를 향해 애정의 말도 잊지 않았다. “우리 동문은 청주대학교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교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젠 제2의 도약을 꼭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특화된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청대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윈 스타' 황천용 동문이 후배들에게 강력히 실천강령을 주문했다. 첫째, 초심을 지켜라. 성실히 행하는 동안 나를 지켜보며 지지하는 이가 나타난다. 둘째,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춰라. 그러기 위해선 늘 공부해라. 셋째, 항상 현장에서 배워라. 현장에 답이 있다. 넷째,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는 신뢰의 시작이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나를 칭찬해라. 이를 묵숨처럼 실천하며 군인의 길을 치열하게 걸어온 82학번 당당한 청대인의 마지막 당부였다. ⑤



청춘의 열정이 담긴
35년 전 대학 노트
지금도 다이어리에 빼곡히
매일의 사건사고를
기록하는 황천용 동문은
1982년 1학년 때 썼던
강의 노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인정을
받으며 오늘날 준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쉽 없이 이어온 '기록의 힘'
아니었을까?

연극 연출가의 길을 걷던 송형중 동문이 지난해 제5대 서울연극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 서울연극제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학로를 세계적인 문화지대로 가꾸어갈 계획도 펼쳐 보이는 그에게서 예술가의 총천연색 꿈을 보았다. 보이는 것이 대학로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송형중 동문. 그는 연극을 사랑하는 인문학 전도사였고,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대학로의 167개 소극장과 호호하는 일상

햇살이 기분 좋은, 바람마저 연둣빛으로 불어오는 봄날의 대학로는 말 그대로 '생기'로 가득했다. 오래도록 젊음의 공간으로 살아온 대학로. 마음만 먹으면 온종일 연극에 빠져들 수 있는 이곳은 술한 연극인들을 키워내고 보듬어주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인생의 3분의 2를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송형중 동문은 서울연극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지난해부터 대학로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오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대학로에는 소극장이 167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365일 내내 공연이 열리는 곳이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도 충분한 만큼 매력 있는 곳입니다. 이런 대학로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연극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의당 리더라면 사람을 모으고, 함께하며,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송형중 동문은 교향악단 지휘자가 되어 크고 작은 협회의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다양한 연극 축제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과의 작품 교류, 지역 거버넌스 활동, 또 연극인들의 복지사업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신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5대 회장으로서 이제는 서울 연극인들을 위한, 또 사회와 제대로 거버넌스를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념할 생각이자. 대학로를 낙산 이화마을과 연계해 관광특구로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중 서울연극제는 가장 목적인 행사라 하겠다. "포스터에 '달걀'을 등장시켰어요. 작년에 커다란 달걀 하나만 보여줬고, 올해는 그 달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좋은 공연이 사람의 마음을 꽃피우게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달걀이 나올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임기 3년 동안 달걀을 컨셉으로 포스터 방향을 정해놓은 것만 보아도 서울연극제를 더 재미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말에 믿음이 간다. 달걀은 3천 8백여 서울연극협회 회원들에게 이미 새로움의 상징이 되었다. 연극제 기간에 달걀 모형을 머리에 뒤집어 쓴 '달걀 인간'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니, 이번 연극제는 더 입체적인 문화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

삶과 예술이 일치해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

송형중 동문은 한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이루기까지 그에게 대학로 이전에 청주대학교 연극학과가 있었다. 연극에 빠져 있던 고등학교 시절, '청주대에 가면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이끌려 전남 고흥에서 청주까지 극작가 차범석 교수를 찾아왔던 열아홉 열기는 남달랐다. 막연히 꿈꾸었던 세계를 가까이 만지게 해주었던 은사님과의 시간은 그의 인생 뒷발을 야무지게 일구던 시절이었다. "차범석 교수님은 늘 엄격하셨습니다. 수업 10분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결석일 정도로. 연극인은 늘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연출을 해보니 그 뜻을 잘 알겠더군요. 삶과 예술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교수님도 연극협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좋아하는 연극. 이 바닷속에서 그는 마음껏 헤엄치며 성장했다. 졸업하기 전까지 연출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 것만 총 다섯 편. 연극학과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그는 또 자신이 받은 만큼 후배에게 아낌없이 준 선배로도 유명하다. 조교 시절에도, 잠시 모교에서 강의할 때였을 때에도 '최고의 메소드는 훈련'이라며 후배들을 다그쳤고, 가장 가까워서 힘이 되어주었다. 수행하듯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내야 하는 예비 연극인들에게 일상환경과 조금 떨어져 있는 '안덕벌'은 최고의 환경이었다. 대학로에서 또 영화계에서 청주대 출신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그다. 예술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연출가 모임 '해화동 1번지' 3기로 활동하면서도 연극인들에게 좋은 마당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키워왔다. 이런 깨달음과 실천이 켜켜이 쌓여 지금까지 잔잔한 문화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 벌써 11년째 한국영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진심으로 호호할 수 있었던 것도 내면에 자리잡은 그의 생각, 바로 '연극은 살아있는 인문학'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일흔 살 고회를 맞은 모교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

"연극은 여럿이 함께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협치가 있어야 하고 진심 어린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연기는 리액션입니다. 상대방의 몸짓과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극인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무척 중요합니다." '연극은 살아 있는 인문학'이라는 말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살아온 그는 대학로에서 벌이는 사업마다, 또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인문학의 꽃이 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협회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는 전방위 인문학 전도사로 살아볼 참이다. 자신에게 세상을 뚫고 나아갈 용기를 주었던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소신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는 송형중 동문. 그 옛날 청주대학교가 중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대학을 설립하고, 예술인재를 키워낸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돌이켜 보아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며, 그런 모교의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또, 모교가 그러한 특별함을 계속 이어가며 대학 본연의 길을 걸어갈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학로를 농사꾼의 귀한 명처럼 문화의 텃밭으로 일궈가고 싶은 연출가가 꺼내 놓은, 모교를 향한 애정 어린 당부였다. ⑤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었던 '인생연극' <갈매기>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송형중 동문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다. 위트와 재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숨어 있는 작품. 등장인물 '트레플레프'와 '뜨리코린' 사이 그 어디쯤에서 설 없이 방황하며 인생의 균형을 잡아나갔던 지난날을 떠올려본다.



살아있는 인문학으로 예술을 살고

열정을 깨우다

송형중 동문

연극학과 86학번, 서울연극협회 회장, 극단 '가뻐' 대표, 한국영상대학교 연기과 교수

"연극은 살아있는 인문학입니다. 연극은 여럿이 함께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협치가 있어야 하고, 진심 어린 리액션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비로소 한 편의 연극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청주라는 푸르고 깊은 그릇에

삶과 사람을 담아내다

박호표 교수

관광경영학과,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되는 순간 나를 돌아보게 되고,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물리적(공간적), 심리적인 ‘탈일상’,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觀光. 말 그대로 ‘빛을 본다’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깨닫고,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2월 1일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박호표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계획 분야 전문가다. 관광은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공간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가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청주시의 관광자원을 이야기했다. 청주라는 도시에 앞으로 어떤 매력을 더할 수 있을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역사문화 도시 '청주'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경주, 전주, 청주.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풍부한 문화·역사적 유산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라는 점일 것이다. 각 도시마다 매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발산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지의 고장, 수암골 벽화마을이 있는 도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 바이오 산업도시 등의 이미지가 청주시를 말해주고는 있지만, 이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얼굴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박호표 교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많은 청주 지역에 아이러니하게도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에 그저 미안한 마음이다. 관광계획과 마케팅 전문가로서 수년 간 청주시의 관광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학자의 안타까움과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올해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어깨는 조금 더 무거워졌지만, 새로운 기회들을 직접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쁘다. “우선 지역이 충분히 무르익은 후에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시민들의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적 자긍심을 키워나간 후, 이를 다른 지역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정말 오래도록 사람들이 찾고 아끼는 도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청주관광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열리는 도시인만큼 대단위 공예촌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지, 또 직지마을도 만들 수 있겠지요.” ‘관광콘텐츠의 달인’으로 불리며 그동안 통영 케이블카 프로젝트, 통영 ES리조트, 제천 ES리조트 등 대규모의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그이기에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청주시를 제대로 잘 알리고 싶은 욕심이 남다른 수밖에 없다. 그가 최근 집중하여 고민하고 있는 곳은 바로 ‘조정’이다. “조정 광천수가 세계 3대 광천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120일 동안 행궁을 짓고 안질을 치료한 물이지 않습니까. 관광자원이니 물 자체로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단순히 음용수로서가 아니라 테라피, 힐링, 수치료 등으로 연결시켜 ‘테라피 휴양촌’의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에비앙을 보세요. 인구 8천여 명에 불과한 프랑스 작은 마을의 물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우리 조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 자산인 조정이 오송과 오창 지역의 BT와 연결되어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사람을 읽는 학문이자 '탈일상의 길'을 만드는 일

박호표 교수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확신한 것은 바로 관광에 대한 남다른 해석과 시선이다.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노는 것이 관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광은 인간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야 해요.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는 각기 다르겠지만,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다는 건 같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순간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요. 그래서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물리적(공간적), 심리적인 ‘탈일상’,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觀光. 말 그대로 ‘빛을 본다’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깨닫고,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늘 가던 길을 잠시 벗어나 볼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내어주고, 그 길 위에 보고 느낄 만한 것들을 잘 배치해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의 시선은 역시 달랐다. 그리고 보니, 관광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자 학문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일까? 혹자는 ‘관광’을 ‘사람에 관한 학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던가. “관광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모든 관광상품은 그 자체로 사람이거나,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인문학, 사회학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공간의 본질을 살리고, 가치를 더해갈 '관광 청주'의 미래

청주 지역에서 앞으로 더 널리 알리고 싶은, 지금은 안타깝지만 향후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박호표 교수는 단박에 ‘청남대’를 이야기한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한 대통령의 별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관리권이 총복으로 이관된 후 현재 단체관광지로 소비되고 있는 그곳이 박호표 교수에게는 또 다른 도전으로 남아 있다. 대통령의 별장을 공개한지 꽤 되었지만 아직 정체성을 잘 살린 관광지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전락과 개발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통령, 별장 이 두 단어만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청남대를 찾아가지만, 막상 가서는 대부분 실망을 합니다. 생각처럼 화려하지 않거든요. 청남대는 그저 세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게 청남대라는 공간의 본질인 셈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예로, 대통령이라는 콘텐츠를 충분히 살려 청남대에 ‘대통령 리더십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덧붙인다. 마치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말이다. “공간의 본질을 살려라. 거기에 가치를 더해라.” 학자로서, 또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박호표 교수가 가꾸어갈 새로운 관광 청주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큰 기대를 품어본다. ①



20년을 함께한 손때 묻은 다이어리 커버 오랜 시간 동안 박호표 교수와 함께 해온 낡고 오래된 다이어리 커버. 벌써 20년째 커버는 그대로 둔 채 다이어리 속지만 바꿔 계속 사용하고 있다. 손때 묻은 올리브색 다이어리 커버에서 시간과 기록의 위대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2017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
창업동아리
500°C 대표

유리에서 뜨거운 길을 만나다

이승호 학생
공예디자인학과 4학년

어느 날, 우연히 수입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유리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병들과 팽창열이 맞지 않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는 그 병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묻혀질 병들을 정성껏 녹이고 매만져 귀걸이, 반지, 팔찌, 트로피, 디퓨저 용기, 향수병 등으로 변신시키는 과정은 정말 매직이나 다름 없어요. 현재 청주공항에서 저희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저는 '팔리지 않는 포도가 최고의 와인이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 보다 나만의 것을 찾아 묵묵히 걸어갈 생각이예요. 천천히 잘 살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음이고 싶습니다. ①

지금까지 제 미래에 대해, 그렇게 집중하며 생각해왔던 때가 있었을까요? 5시간 동안 꿈을 고민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하고, 또 밀도 있게 계획을 세워보면서 '정치인'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은지 많은 친구들 앞에서 피력했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구체적인 커리어 설계를 하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더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서 지금의 제 선택과 다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제 꿈을 더 믿어주고 힘껏 응원할 거예요. ①

김한얼 학생
정치안보국제학과 2학년

정치인이라는 꿈에 대한 몰입과 확신의 시간

진로나침반
프로그램
—
Career Compass
참가



팀으로 디자인 공모전에 도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정말 기뻐요.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에 저희 둘 모두 자신감 상승 중입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디자인은 주방 레일 수전(Rail Kitchen Faucet) 인데요.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한, 주방에서의 물의 사용'을 주제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찌개와 국을 자주 끓이고, 그만큼 주방에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개수대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수전을 움직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팀은 수전 자체를 예쁘게 디자인했겠지만, 저희는 개수대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조리하는 행동 자체를 디자인했다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디자인 기획 분야에서 실무를 많이 경험한 후 창업하고 싶고(문형욱),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은데(이정현), 저희들 꿈에 이번 수상이 정말 큰 격려가 되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차근차근 이뤄가고 싶습니다. ①

문형욱, 이정현 학생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3학년

나를 당당히
서게 할 이름,
디자이너

IF 디자인 어워드 2017

본상(Winner)
수상



2017학년도 입학식

신입생 대표
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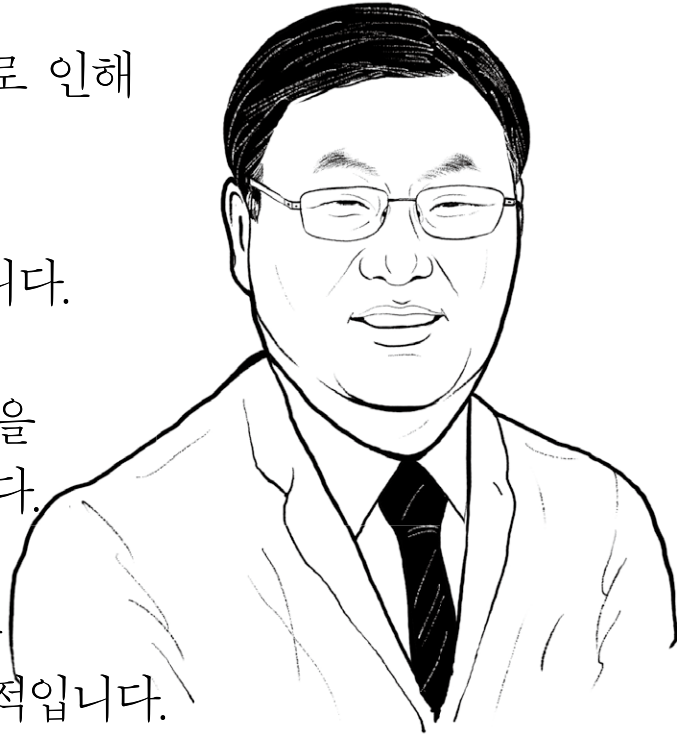
두근두근 파일럿
기다려!
세계의 하늘아

박선우 학생
항공운항학과 1학년

제주에 살면서 아주 어릴 적부터 파일럿의 꿈을 키웠어요. 매일 시시때때로 제주 상공을 날아오르고 내리는 비행기들을 보면서 정말 근사하다, 비행기를 운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전공과목 중에 항공전자학 같은 과목은 정말 어렵긴 한데,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라서 무조건 좋습니다. 벌써 꿈을 이룬 것 같아서요. 1학기 후반에는 비행 시뮬레이터도 직접 타보게 될 텐데요. 얼마나 신날지 생각만 해도 들뜨네요. 입학식 때 신입생 2,752명의 대표로 선서를 하고 나니 남들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좀 있었는데, 하루하루 일과에 충실하면서 학교생활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제 꿈에 다가가는 과정이니까요. 세계의 모든 하늘을 누비는 파일럿! 그런 저를 떠올리기만 해도 좋아서 웃음이 나오. 시력 관리, 체력 관리도 잘할 거고, 여름방학엔 꼭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넓은 세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①



“ 우리 청주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분명 축복 받아야 마땅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컨설팅과 2주기 대학평가로 인해 봄소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형형색색의 꽃들도 눈웃음을 치고 바람에 손짓을 하건만 고개를 돌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해 저무는 저녁, 중앙도서관의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캠퍼스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활기를 느낍니다. 옛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멋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 하였듯이 이제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전공 및 교양 교과과정의 탈바꿈 또한 필연적입니다. 선배교수, 동료교수, 후배교수라는 호칭까지도 설 땅이 점점 없어지는 지금, 한 가족 같이 끌어주고, 어깨동무하고, 밀어주는 아름다운 교수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교수이기 이전에 우리는 ‘청대 가족’이기에 우리대학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기여한 것을 되새겨 볼 때에, 후회하지는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일거리를 챙겨봅니다. ”



청주대학교 교무처장 박동철 교수(문헌정보학과)가 청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선배, 동료, 후배 교수님들께

UNIQUE & VARIOUS
 특별함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학,
 청주대학교가 열린 생각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내일’이라는 미지의 문을 열겠습니다.

UNIQUE & VARIOUS

청대인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와우청대> 편집팀에서는 ‘共感,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에 실릴 짧은 편지글을 공모합니다. 동문,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_ 청대인이 또 다른 청대인을 대상으로 보내는 짧은 편지글 분량_ A4 기준 반 페이지 이내 마감_ 6월 20일(화요일)까지
 기타_ ① 본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② 일러스트 작업에 필요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보내실 곳_ mybloomy@naver.com 문의하실 곳_ 02. 3142. 7373

28
미래를 읽는 대학
 젊은 기운과 열정이 만들어낸 상승기류,
 보건의료대학의 밝은 내일을 만들다

30
지역과 어깨동무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청주시 시니어들의 정다운 동행이 되다

32
나의 세계문화 견문록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_문헌정보학과 백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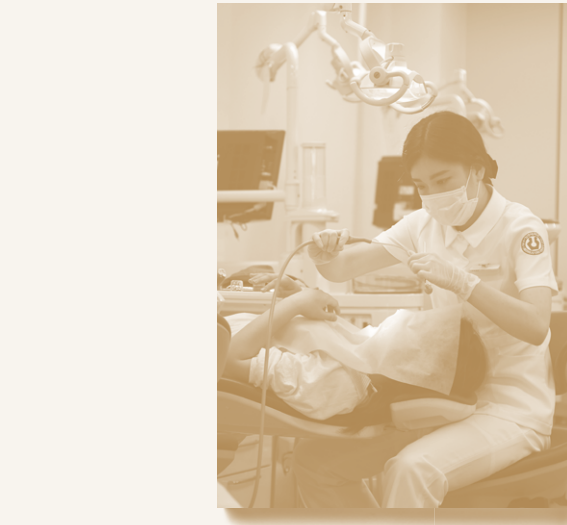
34
트렌드 바로 읽기
 4차 산업혁명,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_컴퓨터정보공학과 김성열 교수

36
예술에게 말 걸기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서 탄생한 클래식 음악,
 청춘의 갈등을 채우다
 _법학과 조병선 교수

젊은 기운과 열정이 만들어낸 상승기류,

보건의료대학의 밝은 내일을 만들다

교수와 학생들의 살아있는 소통과 호흡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최근 우리대학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보건의료대학이 그 좋은 예로, 8개 학과들이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 등에서 고르게 100%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대학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연숙 학장을 비롯한 8명의 학과장들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탁월한 전문성, 지도자적 사명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위생학과장 민지현 교수



학생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내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졸업 후 입장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과 졸업조건을 폭넓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방사선학과장 구은희 교수



학생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잘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건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에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학과장 홍영기 교수



요즘 학생들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과 이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대인관계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장 윤현정 교수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습시간을 1,000시간으로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니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작업치료학과장 김덕주 교수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려 합니다.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이 전폭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임상병리학과장 이석준 교수

100%를 향한 도전! 청주대학교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대학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국가고시 합격률, 그리고 높은 취업률, 최근의 보건의료대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00%에 가까운 눈부신 성과' 아마도 이 한마디일 것이다. 2009년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를 시작으로 방사선학과,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가 차례로 개설된 보건의료대학은 2012년부터 단과대학으로 승격되어 현재 총 8개 학과에 1,200여 명의 재학생들이 미래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가 국가면허시험에서 100% 합격생을 배출한 이래 매년 눈부신 성과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방사선사 시험에 응시한 32명의 방사선학과 학생 중 30명이 합격해 93.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방사선학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2015년 말 기준 졸업자와 취업대상자 모두가 취업에 성공, 100%의 경이로운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리치료학과 역시 물리치료사 시험에 27명이 응시하여 25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44회 임상병리사 시험에서는 임상병리학과 첫 졸업예정자 22명 전원이 합격해 전국 평균 74.2%의 합격률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제44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도 치위생학과 응시생 33명 전원이 합격하였다. 또한, 지난 1월 치러진 제57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도 응시생 86명 전원이 합격했다. 2013년 개설되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작업치료학과 역시 제44회 작업치료사 시험에서 응시생 23명 중 22명이 합격했다. 모두 전국 평균 합격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들이다.

학생 맞춤형 개별교육과 풍부한 임상경험!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의 비결

보건의료대학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실무 감각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시스템 덕분이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현장 접근형의 최신식 실습실과 실습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재활원, 충북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국내 우수병원에서 진행되는 수준 높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높이는 것 또한 보건의료대학의 중요한 경쟁력이라 할 것이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각 학과별 특성에 맞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국가고시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취업과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지도 프로그램인 '1대1 책임지도교수제'는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하며 현장실무능력과 더불어 훌륭한 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 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교육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현장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감 높은 젊은 교수진의 패기가 있고, 학생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배움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보건의료대학의 미래는 앞으로 더 밝아질 것이다. ①



보건의료대학 김연숙 학장과 8개 학과의 학과장들



바른 인성교육과 주도적인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 관련 학과 동아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학과 동아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장 이준희 교수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료경영학과장 홍재석 교수



8개 학과별로 운영되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

간호학과 간호교육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2015년 6월)하면서 충북 지역을 리드하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 임상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인성함양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간호인을 양성하고 있다.

치위생학과 지역사회에 있는 치과병원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선생님의 특강을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하게 한다.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교과 과정(치과 재료 및 임플란트 제작 회사 오스템 방문, 초음파 스케일링 제작 회사의 교육 담당자 초청 강연, 치과건강보험학 자격증 대비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방사선학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교육담당자를 초빙하여 취업특강 및 실무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주)피닉스비전으로부터 2억9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56본을 기증받았다. 이 같은 장비를 활용해 급변하는 디지털 의료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의료경영학과 면허(의무기록사, 병원행정사, 사회조사분석사 등)와 관련하여 특화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 실습을 병행해 보건의료경영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이나 전문가 특강을 통해 보건학 분야의 다양한 진출경로를 알려주고 지도하고 있다.

물리치료학과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가능해부학, 해외물리치료사 면허 준비 등)를 만들어 학생들이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교내 특성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헬스케어 트랙'을 통해 학문간의 융합과 창의적인 아이템을 학습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의학과 일선 운동치료센터의 설비를 그대로 구현한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어 입체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전국 유수의 운동치료센터의 설립자들이 겸임교수로 참여하여 나날이 변화하는 현장의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병리학과 학과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최첨단 설비의 교육은 방학 중 외부 산업체에 위탁 교육(예: Next Generation Sequencin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조적,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 중점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전공과의 융합전공(임상병리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제약공학과)을 운영 중에 있다.

작업치료학과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기준에 부합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습시간 1,000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보건소, 흥덕구보건소,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고 인지자극치료와 회상요법, 신체활동 등 경증치매환자나 고위험군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예방을 위한 각종 치료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청주시 시니어들의 정다운 동행이 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앗싸! 인생은 아름다워〉 현장 탐방기

80명의 지역 내 어르신, 새로운 '인생학교'와 만나다

1999년 개원한 뒤 현재까지 33,0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온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이 최근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충청북도와 충북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앗싸! (ASSA: Active Senior Successful Aging)! 인생은 아름다워〉 프로그램을 총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과 내덕노인복지관에서 총 4개 반에 걸쳐 8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지역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취미와 여가활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앗싸! 인생은 아름다워〉 프로그램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여생을 계획하는, 일종의 '인생학교'가 되는 셈이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만족감을 높이고 여생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참가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이 처음으로 제시하여 실천하고 있는 '노년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내덕노인복지관 배움방에 모인 20명의 어르신마다 쑥스러움과 호기심의 눈빛이 역력했다. 두 번째 시간이라 아직은 서먹한 느낌이었지만, 한달롱(간호학과 교수) 강사가 먼저 자신의 인생곡선을 그려가며 자신의 행복했고 불행했던 기억을 쏟아내자 강의실은 이내 공감의 몸짓과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선 위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다. 용기를 낸 어르신 한 분이 자신의 인생곡선을 발표하는 순간, 다른 한 분은 동시대를 살아온 '동기'의 인생 역정과 자신의 인생이 겹쳐지면서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다시 학생시절로 돌아간 듯 강사의 말에 집중한다. '나의 인생곡선'을 그려가며 지나온 삶을 되짚어보면 그들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해지고, 잠시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누군가 시작한 인생 이야기에 꼬덕이면서 공감의 웃음도 피어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열어가는 어르신들이 외칠 "앗싸!"는 무슨 의미일까? 질문의 답을 구하고자 지난 4월 14일 내덕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앗싸! 인생은 아름다워〉 프로그램 두 번째 수업시간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청주대 교수진과 영화인,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15주간의 대장정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성공노화 개념, 생애곡선의 이해, 행복지수 높이기, 자기성향 이해, 노년의 건강관리 등의 체계적인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회고록을 만드는 실습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15주 동안 진행된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만족감을 높이고, 여생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수강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과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버킷리스트, 자기서명선언서 등을 작성하면서 좀 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영상 제작도 단계별로 학습해나간다. 시나리오를 쓰고, 1분짜리 영상물을 먼저 만들어본 후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 본격적인 영상회고록을 제작하게 된다. 촬영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진행하고,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데스크톱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 완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최종 영상회고록은 마지막 수료식날 상영회를 통해 공개된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대학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건강, 노년의 삶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영화감독 신운하 씨가 영상회고록 제작을 지도한다. 또 우리대학 영화학과 학생들이 영상제작 보조강사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우리대학의 교육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치유가 되었고, 희망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내덕노인복지관 수강생 최예균 님

“올 1월에 남편과 사별한 뒤 힘든 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클래식의 초대〉라는 강좌를 들으면서 조병선 교수님의 말씀과 음악으로 힐링하고 있었던 터라 청주대 평생교육원의 교육엔 믿음이 갔지요. 은퇴 이후 노년의 삶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오늘 인생곡선 그리기를 하면서 행복했던 추억, 눈물나게 불행했던 추억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잠시 눈물도 나왔지만, 희망을 떠올려보게 되었다는 점이 신기해요. 앞으로 다른 이들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늘 힘이 되어준다는 걸 아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영상회고록을 만들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해보는 수강생들



이날 강연에서 수강생들에게 생애곡선 그리기를 지도하고 있는 간호학과 한달롱 교수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생애곡선을 완성하고 있는 수강생

성공노화를 위한 인생 기록, 〈앗싸! 인생은 아름다워〉 교육일정

차수	주제	주요 내용
1차	개강식 / 성공노화란?	• 오리엔테이션, 자기 소개, 연락처 주고 받기 • 성공노화의 개념
2차	나는 누구인가?	• 생애곡선의 이해와 나의 인생 • 생애곡선 완성하기
3차	지금 나는 행복한가?	• 행복지수 높이기 •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행복한 사진 찾아보기
4차	나의 버킷리스트	• 자기성향 이해와 관계 돌아보기 • 나의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사례 알아보기
5차	나의 주변 살피기	• 영화 〈버킷리스트〉 감상 • 영화에 대한 토론 • 나의 버킷리스트는?
6차	나의 미래 서명?	• 자기서명선언서와 퍼스널 윌에 대한 이해 • 자기서명선언서 작성해보기
7차	나의 행복한 인생 설계 1	• 영상회고록 제작의 필요성 및 영상 시나리오 구성 방법 • 영상 시나리오 작성해보기

차수	주제	주요 내용
8차	나의 행복한 인생 설계 2	• 영상 시나리오 발표 및 피드백
9차	나의 행복한 인생 제작 1	• 카메라 사용법 • 옷은 얼굴로 셀카 찍기
10차	나의 행복한 인생 제작 2	• 상황별 구도 및 촬영법
11차	나의 행복한 인생 제작 3	• 촬영실습 • 1분 짜리 영상물 만들기
12차	나의 행복한 인생 제작 4	• 편집 프로그램 소개 및 사용법 • 편집의 활용
13차	나의 행복한 인생 제작 5	• 영상회고록 제작(촬영/편집)
14차	나의 행복한 인생 완성 1	• 노년의 건강관리 • 영상회고록 완성
15차	나의 행복한 인생 완성 2	• 앗싸!(ASSA)! 행복한 노년- 특강 • 영상 상영회 및 수료식

나만의 망원경으로

새로운 세상 발견하기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백진주_문헌정보학과 13학번



유타주 의회 의사당 'Utah State Capitol'에 방문했을 때 찍은 의사당 전경

우리대학은 미국,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주요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의 다양한 기업, 학교, 정부, 공공단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지난 학기 미국의 도서관과 학교에서 전공에 걸맞은 인턴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진주 학생에게 생생한 후기를 들어본다.

미국 도서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나는 평소 해외 여러 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이용자 서비스 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미국의 각 도서관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또한, 학과 특성상 마지막 학년에는 실습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직접 미국에 가서 도서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바람과 함께, 실습을 해야 한다는 4학년의 현실을 고려해 교내 해외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됐다. 처음 선발과정에서 학교성적 평가와 영어 인터뷰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해본 영어 면접이라 많이 떨렸던 것 같다. 선발된 후에는 학교에서 연계해준 인터넥스 어학연수센터를 통해 학생비자(F-1)와 미국 홈스테이 컨택 등을 진행했다. 나는 평소 토마토에 알러지가 있어 홈스테이를 선택하기까지 무척 신경을 많이 썼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땐, 바로 앞의 학생이 관계자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저리 둘러보는 행동을 하다가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보게 됐다. 미국이 보안과 테러에 얼마나 민감한 나라인지 그때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인턴십 과정은 총 4주의 영어집중 과정과 8~9주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 그동안 배운 영어를 재정리하는 4주의 영어집중 과정으로 진행된다. 나 역시 영어집중교육을 받았는데,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레벨 테스트를 통한 반 배정을 받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함께 미국생활에 적응해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 주에는 한국에 오기 전 미리 써온 미국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첨삭을 받았고, 이를 마친 후 본격적인 미국 인턴십에 들어갔다.



내가 근무했던 Hawthorne Elementary School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렸을 때 아이들 모습



뉴욕 여행 중에 들렀던 뉴욕 공공도서관 (New York Public Library)의 웅장한 외관



Hawthorne Elementary School 내 도서관에서 지역 서점들과 협력하여 판매하던 책들

학교도서관과 초등학교를 무대로 펼쳐진 나의 파란만장 인턴십 라이프

처음 이력서를 보낸 곳은 'Salt Lake City Public Library'로 미국 내에서도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수상했을 정도로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다. 하지만 도서관 사서를 전문직으로 취급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는 학부모 자격으로 인턴십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해있는 'Hawthorne Elementary School'의 학교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초등학교 Kindergarten과 1학년과 2학년 수업의 보조를 맡아 근무하게 되었다. 근무를 시작할 무렵, 초등학교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팔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참여율이 정말 대단했고 내게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인턴십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도서관에서 맡은 나의 주된 업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책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책의 양이 상당히 많았고, 한정된 기간 내에 그 많은 책들을 다 배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단순히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책 표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아이들의 호기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행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또, 선생님을 도와 수업을 보조할 때엔 해당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간단한 문장을 만드는 법, 접속사를 사용하는 법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물론 아이들을 돌보아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도 있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에 너무 집중을 하지 못해서 무릎에 앉히고 다독여주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담당 선생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위해 선의로 행동한 것은 알고 있으나, 무릎에 앉히고 수업하는 것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고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셔서 이후부터는 좀 더 주의할 수 있었다.

지난 미국 인턴십 생활을 돌아보면, 16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정도로 값진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한 기분이 든다. 특히, 미국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은 미국의회도서관부터 시골의 작은 도서관까지 트나는 대로 방문해 보았는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한 도서관은 꽃을 팔고 책을 파는 상점이 있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보니 인생관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후배들도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자신만의 망원경을 찾았으면 좋겠다. 📖



뉴욕 공공도서관 안에 있는 서점에서 다양한 책들을 둘러보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는 나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 지원자격** |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이며, 토익 6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회화능력을 보유한 재학생
- 교육내용** | 미국 현지 인터넥스 어학연수센터에서 영어교육(Intensive English 4주~12주) 과정을 마친 후 이어져 미국 현지 기업, 초등학교, 정부, 공공단체 등에서 인턴 근무(무급)
- 학점인정** | 현지 수료증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5개월 이상 최대 18학점 인정
- 장학지원** | 연수 수료 후 본교 등록 시 한 학기 등록금 50% 감면(연수학비가 졸업 전 최종학기인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파견 후 수확보조금 150만 원 지급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환상

감미로운 음악소리와 밝은 조명이 켜져 편안한 '스마트침대'에서 눈을 뜬 직장인 김 과장은 '홀로그램 모니터'를 통해 오늘의 뉴스와 날씨를 체크하고 요리하는 로봇 '물리'가 만든 스크램블,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한 아침을 마친 후 '스마트옷장'이 정해진 슈트를 걸치고 가정용 로봇 '로비'의 환송을 받으며 현관문을 나선다. 주차장에 내려가서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위치에 주차된 자동차로 다가오니 자동으로 문이 열려 착석하고, 자동으로 안전벨트와 시동이 걸린다. 목적지를 말하니 자율주행 운전이 시작되고, 그 사이 김 과장은 오늘 일정과 메일을 체크한다. 자동차는 김 과장의 감정을 분석하여 김 과장이 좋아하는 상송을 은은하게 들려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해외 거래처에서 도착한 문서를 열면 한글로 번역하여 보여주며, 답장을 말로 하니 바로 문서로 변환되어 해외 거래처로 전송된다. 각종 회의는 홀로그램 모니터를 통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중요한 회의 결과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정리하여 임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근무 중 집안의 냉장고는 부족한 우유·음료수·과일 등을 마트에서 인터넷 구매하여 퇴근시간에 맞추어 배달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고 결제한다.

이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10년 후 김 과장의 일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녹아있다. 도우미 로봇인 '물리'와 '로비'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스마트침대, 화장실의 변기, 홀로그램 모니터, 스마트가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모든 디지털 제품들은 모두 사물인터넷(IoT) 제품이다. 인공지능과 감성공학을 근간으로 하는 융합시스템, 각종 결재에 이용되는 스마트결재 시스템 등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예다.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

산업혁명의 발전과정은 1차 산업혁명(1784) 당시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와 2차 산업혁명(1870)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생산현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1969)부터는 '컴퓨터와 반도체'를 이용한 '자동화·정보화'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유통' 등 전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고 '정보화'를 추구하여 생산현장에서 사회전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2016)은 획기적인 '소프트 파워'를 통한 각기 다른 기술들의 협업과 융합으로 생산 방식은 물론, 제품까지 그리고 인간사회 자체가 지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었던 '디지털화'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기존 인간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진행된 3차 산업혁명은 개인용 컴퓨터가 일상화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직접 소비자의 품을 파고 들어 이러한 ICT 기술이 인류의 삶 자체를 통째로 변화시켰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닷컴 기업이 등장했으며, 사회적 소통 방식도 SNS를 이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소통의 개념과 방식이 달라졌다.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예고하며 이미 산업현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생산기기와 제품들을 IoT로 연결함으로써 전 제조 과정을 자동화·최적화한 '스마트 공장(지능형 공장)'을 목표로 전환 중이며, 단순한 노동력보다는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구현에 성공하는 기업과 사회가 미래를 선도할 것이기 때문에 산업구조나 사회구조 변혁에 적극적인 도입을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차 산업 기술의 다양한 적용으로 시작된
놀라운 일상

지난해 세기의 대결로 불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보았듯이 바둑계의 신이라는 이세돌 9단도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무장한 '알파고'에게 완패한 바 있다. 또한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진단시스템은 암환자 진료와 치료 현장에서 이미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운송도구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대체하고, 인간과 로봇이 대화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계들이 서로 대화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인공지능이 탑재된 시스템들이 세상의 주체로 대체되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실생활 적용사례를 찾아본다면, 하나의 예로 기계식·전자식 '만보기'가 사라지고 이를 '스마트워치'가 대신하여 걸을 수뿐만 아니라 심박수, 혈압, 체질량, 운동량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까지 측정하여 수집한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다. 스마트워치는 만보기에 IoT 관련 기술인 센서, 와이파이,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결합된 제품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와 긴급 구난에 활용되기도 하고, 미국의 한 보험사는 이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아마존사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무인택배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무인계산대가 설치된 아마존 매장을 미국 전역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의 고리를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끊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어린 전망을 발표했는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4년 41조 달러가 되어 사물인터넷·스마트자동차·빅데이터 등의 신규 관련 산업들이 세계경제를 부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선점을 위해 전통 제조업체의 상징인 GE는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겠다고 선언했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플과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에 참여하여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에 따라, 직종의 존폐 여부에 따라 일자리의 절대적인 감소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4차 산업혁명을 추창하고 있는 다보스포럼 '미래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5년 안에 700여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여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어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와 각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당연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모험적이고 신선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무작정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에 젖어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빈부의 격차와 지역·세대·인종·종교·이념의 갈등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림자로 이러한 시류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재앙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인간 소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기적과 같은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고 즐기는 인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 또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향후 10년, 20년 뒤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지난해 작고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는 언제나 늘 빨리 다가올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현재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인공지능화, 자동화, 로봇화되는 등의 빠른 기술 발달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회와 함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 혼란을 이겨내고 어떻게 기술들을 활용하고,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갈지를 끊임 없이 고민해야 한다. 시간은 가고 늘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고 인간 삶이지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로 기회가 왔을 때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자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4차 산업혁명,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컴퓨터정보공학과 김성열 교수



김성열 교수는 1990년 우리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현재까지 컴퓨터 네트워크와 IT융합기술, IoT 전반을 아우르는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정보과학회와 한국통신학회 중신회원, 호주 퀸즈랜드 공과대학교 ISRC 객원연구원, 청주대학교 이공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치열한 법정공방 속에서 탄생한 클래식 음악,

청춘의 갈증을 채우다

법학과 조병선 교수



좌절과 고독을 위로해주는 위대한 음악의 힘

이야기는 필자의 독일유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에서는 법학 박사과정으로 유학한 것이었지만 음악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그때까지 못내 아쉬웠던 음악에의 갈증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갈증을 넘어서 법과 음악의 긴밀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었다.

슈만의 세미나 시간에 필자는 슈만과 클라라의 결혼허가를 얻기 위한 법정투쟁(당시 클라라는 미성년자였기에 부모의 혼인동의가 필요하였다) 속에서 탄생한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1번 F# 단조 Op.11을 발표하였는데, 담당교수의 극찬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 학생들이 아무리 자국의 작곡가를 독일어로 이해하더라도 당시 법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필자의 법적 배경의 분석에는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필자는 지원받던 장학금도 종료되고 비자 연장의 어려움 등으로 음악학을 포기한 채 귀국하여 결국은 지금까지 법학교수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박사학위는 없어도 음악학을 공부하였던 경험을 살려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강의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악곡분석을 위주로 하기에 간혹 음악전공 학생들도 수강한다), 가끔은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사법기관, 또는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 같은 융합적 전문강의도 맡아 해왔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본다. 내게 음악이란 무엇일까? 독일에서 음악학 공부를 시작한 때처럼 어느 좌절된 청춘의 갈증과 같이(당시 사회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경제성장의 압박감, 개인은 출세를 위한 공부의 압박감과 대학 캠퍼스는 유신독재 반대집회로 최루탄만 가득하던 때였다) 좌절과 고독을 위로해 줄 '음의 코스모스적 조화'를 동경하였던 그대로일까? 필자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어오기도(이제 대학 캠퍼스에는 최루탄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인간에게 어떠한 종류든지 '갈증'은 여전히 잔존할 것이라고 믿는다.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고전, 클래식 음악의 탄생

지금 캠퍼스의 많은 학생들이 '일류 또는 스펙의 압박감' 속에서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릿고개를 훨씬 넘어와 이제 산업화된 사회구조에서 선의의 개인주의든 아니면 이기적 개인주의든 인간에게 좌절과 고독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학생들은 그 고독과 좌절을 해소시켜줄 시원한 무언가를 찾는 갈증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아마 군대를 다녀온 대학생들은 알 것이다. 타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러나 한 번 목을 축인다고 해서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도 마셔주어야 한다. 마셔주다 보면 갈증을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필자는 몸으로 산 시대의 경험을 토대로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단으로서 클래식 음악을 권하고 싶다. 혹자는 우리의 좋은 국악을 놓아두고 왜 서양의 음악을? 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호모 이렉투스(직립인간)'가 되어 걷기 시작하면서 200만 년을 진화하여 왔고,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 어려운 적응과정에서 정말 귀한 '보물'이 탄생하였다. 우리에게 신비하고 영롱한 '고려청자'가 있다면,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대륙의 '클래식 음악'이 있다. 그래서 음악 단어 앞에 '클래식(고전)'이라는 단어를 붙여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고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청자의 문화적 용도(단순하게는 술병)가 영롱한 고려청자의 빛깔에 침초한 하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서양의 종교와 문화적 배경은 그저 특정한 시대의 별난 음악이었구나 하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다만, 당시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은 뛰어난 지성을 갖고 '음의 코스모스(우주)적 조화'를 찾아낸 천재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경제적 빈곤 속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현재 이른바 '한류'로 떠돈을 버는 아이돌 가수나 엄청난 가격의 바이올린을 들고 특급호텔에 묵는 음악가(필자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를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은 지금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음악은 갈증의 해소를 넘어 거의 구원까지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과 클래식 음악, 해석을 필요로 하는 영혼의 학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 무시를 받던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이 살았던 귀절을 살펴보면 법적 소송을 겪은 사실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필자는 이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였고, 아마도 거의 세계 최초로 거라고(앞서 언급한 독일유학 시절 수만 세미나의 독일인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다) 저부한다. 예나 지금이나 소송을 겪는 사람들은 무척 힘들다. 그래서 법률 도우미 역할을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꽤 많이 구치소에 들어가 국무회의가 가능할 지경이려구나,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한 대학의 교무회의를 열어도 되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담한 이는 아마도 법정 소송에 휘말린 당사자들일 것이다.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법정투쟁은 참담함 속에서 구원의 음악으로 표출되었다. 필자가 좌절과 고독의 갈증을 지닌 청춘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법과 클래식 음악은 '법의 정신'과 '음악의 정신'을 지향하는 '영혼'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이나 법이나 모두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해석하는 사람의 정신세계(예컨대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입법된 민법이 아직도 현대 프랑스에 적용되고 있듯 현재에 맞추어 해석한다)에 속한다. 지난 탄핵정국의 일부 변호사들을 보라. 정의감 없는 법률가에게 법은 그저 수단으로 타락한다. 영혼이 없는 음악가(연주자)에게서 나오는 음악은 감동이 없다. 법률가에게 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정의감을 일깨우는 자구제가 되듯이, 음악의 정신성은 우리의 좌절과 고독의 청춘들에게 구원의 출구라고 믿는다.

슈만의 가곡 '아름다운 5월에(Im wunderschönen Monat Mai)'처럼 깊어가는 봄날의 5월이다. 클래식 음악으로 청춘의 좌절과 고독의 타는 목마름을 풀어 버리고 그 속에 봄의 새싹을 채워 짙은 녹음을 드리우자. ☺



클래식 음악 평론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조병선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알브르트루트비히 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우리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한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1년 넘게 진행해온 KBS 제1FM <당신의 법과 음악> '클래식 법정' 코너에서 소개된 내용을 모아 2015년 단행본 『클래식 법정』을 펴냈다.

“ 2017년, 벌써 우리가 청대에서 보내는 세 번째 봄이 왔어. 멋들어지게 펼쳐진 청대 정문 길을 오늘도 걷다 보니 학교와 함께 보낸 청춘의 시절들이 하나 둘 눈에 아른거려.

우리 역시 이제 막 스무 살 청춘이 된 새내기들과 같이 한없이 부푼 기대와 멋쩍던 모습의 신입생이었고, 이른 저녁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학생의 밤들을 술하게 보냈으며, 성인이 되고 처음 새보는 밤샘 과제를 끝내 내심 뿌듯해하던 많은 날들이 떠오르네.

비단 우리만의 추억이 아닌, 70년 청대인들의 열정이고 청춘이었을 그런 날들이 말이야. 나는 3년의 대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선후배들의 모교를 더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어졌어.

그래서 청주대 온라인 홍보단 '청온'을 맡게 되었어. 우리의 시대는 점차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가득 차 있고 학교 역시 그런 변화에 적응하여 학생들과 온라인 소통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갈 열정의 대학생이자 도약을 꿈꾸는 청춘임을 되새기며 우리들의 청춘의 장소, 청주대학교를 또 다시 생겨날 청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함께 알리자! ”



청주대학교 온라인 홍보단 '청온' 단장 주희진 학생(광고홍보학과 3학년)이 청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15학번 동기들에게

WOW NEWS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대인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와우청대> 편집팀에서는 '共感,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에 실릴 짧은 편지글을 공모합니다. 동문,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_ 청대인이 또 다른 청대인을 대상으로 보내는 짧은 편지글 분량_ A4 기준 반 페이지 이내 마감_ 6월 20일(화요일)까지

기타_ ① 본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② 일러스트 작업에 필요한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보내실 곳_ mybloomy@naver.com 문의하실 곳_ 02. 3142. 7373

40 HEADLINE NEWS

획기적 학사구조개편 단행 외

42 NEWS BRIEF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 개최 외

46 PEOPLE NEWS

김경식 교수, 필리핀 바세코 지역 해외봉사활동 외

HEADLINE NEWS

1

획기적 학사구조개편 단행



우리대학이 대대적이면서 획기적인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우리대학은 최근 교무위원회를 열고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광역화와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이공계 증원, 유사학과 통합, 기초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사구조개편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현재 8개 단과대학을 6개로, 모집단위는 62개에서 28개로, 전공교육과정은 62개에서 49개로 축소했다. 이는 사회수요 부합도 지수와 신입생 경쟁률,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바탕으로 한 외부자문위원회의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또, 4차산업 혁명의 핵심가치 구현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ICT-Energy, BT/의료과학, 디자인/콘텐츠, 항공 등 4가지 특성화 방안을 학사구조에 반영했다. 우리대학은 학사구조개편안에 따른 1, 2차 공청회에 이어 실무부서 협의, 학과별 면담,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 등 100여 차례의 토의와 토론 등을 거치면서 기존의 8개 단과대학에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비즈니스대학 ▲인문사회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교양대학으로 2개 단과대학을 축소했다. 전공은 기존 62개에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34개를 통합하고 6개를 신설하는 등 49개로 줄였다. 또, 실제 특성화 역량의 효과적 함양과 지역 실정에 맞는 융복합 인재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통계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디지털보안전공 ▲광기술에너지융합전공 ▲전기제어전공 ▲정보인터랙션디자인전공 등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 신입생을 각 전공단위가 아닌 사회수요와 직무역량 맞춤형으로 28개 그룹의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한편, 실용-융합 특성화, 학생수요 맞춤형 교육과 학생역량 강화를 위해 15학점 정도의 부전공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교양교과목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초 인문사회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부 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AC)의 수주를 위해 철학·역사블록, 정치·경제·사회블록, 예술·문화블록을 신설하는 등 교양대학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엔 추진할 학부제는 전공에 정원이 있는 기존의 학부제와는 달리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교원이 학부에 소속돼 내부의 전공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전공 간 융합전공 교육 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우리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인증을 신청한 82개 4년제 대학을 비롯해 총 100개교를 대상으로 서면과 현장 확인 등의 평가를 통해 인증대학을 선정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하고자 기존의 ‘외국인유학생 인증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 지속된다. 이번 인증은 1단계 필수 및 핵심여건지표(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유학생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2단계 국제화지원지표(자체 점검보고서), 3단계 현장실사 확인, 4단계 인증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증으로 우리대학은 ▲11개 언어로 활용되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공식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학특성화사업 등의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인증대학의 우수 사례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고, 업무처리 시 활용하도록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 정부 등에 인증대학 명단이 제공된다. 특히, 우리대학은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으로 선정돼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손영호 국제교류처장은 “이번 인증으로 청주대학이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대학은 29개국 164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15개국 57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3

전국 대학 최초 ‘Pre-School’ 운영



우리대학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수시합격생에게 진로설정 동기부여 등을 위해 ‘Pre-School’ 운영에 들어갔다. 수시합격생들에게 효과적인 대학생활 및 명확한 목표설정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전역 교비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운영된 ‘Pre-School’에서는 과정을 이수한 수시합격생들에게 2학점을 인정해 주고, 해외 어학연수 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우리대학은 이번 ‘Pre-School’을 운영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수시합격생 중 13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은 1월 9일부터 기숙사에서 합숙하면서 평생교육원과 예술대학 등에서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필요성 인지를 위한 동기유발이나 진로특강을 들었다. 또 ▲효과적인 대학생활 준비 ▲10년 인생 디자인 ▲‘나와 맞는 직업 찾기’ 등 진로설정 프로그램이 병행해 실시됐으며, 이와 함께 ▲패턴식 영어회화 학습 ▲기초-중간-최종 테스트를 실시한 뒤 개인별 취약파트를 파악하는 모의 토의 ▲문제은행식 시험에 대비한 실전문제 풀이 ▲팀을 이뤄 목표에 도달하는 ‘Team Project’ 등 각종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합격생들의 지쳐있는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음악 듣기와 영화 상영 등의 감성치료를 병행해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교육과정에 대한 일일보고를 진행했다.

곽동철 교무처장은 “각 학교에서 간헐적으로 입학 전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운영을 마치면 학습결과보고서와 설문서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나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4

4개 특성화 분야 지역미래산업과 연계 육성



우리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특성화 생태계 조성, 학생지원 강화와 커뮤니티형 캠퍼스 조성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발전계획 1차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내외 의견수렴과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친 중장기발전계획안을 공개한 우리대학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가치, 지역산업 기반, 학문-교육기반을 바탕으로 한 총 4개 분야를 지역미래산업 특성화 분야로 설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 6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ICT융합산업과 태양광신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첨단과학 분야와 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기여하는 BT/의료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대-육성할 예정이다. 또, 청주가 세계최초 금속활자인 직지(直指)의 고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문화산업 활성화와 미래식산산업의 메카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디자인 콘텐츠 분야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항공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지역미래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실용융합인재 양성 ▲기초교양 강화를 특성화의 세 축으로 삼아 실천하는 한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청권 대표사학으로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초교양교육 이수제제 혁신, 아이팀 확충, 인프라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실용-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은 복수전공 대신 자기설계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시행하고, 동반자적 관계에 기반한 학생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재학생의 학생지도와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360도 밀착된 지원체계를 구축을 추진하고 ‘실학성세’형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캠프와 ‘실학선비 인성양성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SNS 등을 활용한 ‘모바일원스톱 학생지원 시스템’ 구축, 기존 학생지원 기능을 담당했던 센터와 기관들을 통합해 운영하거나 확충하는 등 전문화된 학생생활 지원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 방안 ▲산학협력 체제 구축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 제고 ▲커뮤니티형 캠퍼스와 통합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NEWS BRIEF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 개최



우리대학이 학생 생애주기에 따른 학생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제2회 NAVI Week 비교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4월 20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NAVI Week’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비전을 설계하고, 학습 및 취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비교과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공식적인 수업 없이 비전 및 진로설계를 위해 생애주기별 테마 프로그램을 설정해 운영했다. ‘NAVI Week’는 비전과 진로탐색이란 의미의 ‘Navigation’과 작은 변화의 시도가 결과에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의 ‘나비’를 의미한다.

청주대-필리핀 엔드런 대학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필리핀 엔드런 대학(Enderun Colleges)이 국제학술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경상대학 이인식 학장과 호텔경영학과 김혁수 학과장 등과 엔드런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로디아 플로조(Loida Flojo) 씨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양 대학 간 국제학술 교류 활성화 ▲한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교류와 이해증진 도모 ▲양 대학의 방문자 상호 협조 체제 구축 등이다. 또 ▲장단기 과정의 학생 교환프로그램 운영 ▲양 기관 간 프로젝트, 훈련, 교환 교원·학생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상호 논의 및 협조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사랑의 간식나누기 행사 진행



우리대학 대의원회가 정진주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함께 4월 17일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학내 중문 앞에서 사랑의 간식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대의원회 측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준비한 1,000개 분량의 밥버거와 음료수 등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교 측은 화합하고 희망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대-13공수여단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13공수여단이 장병 문화예술 체험 확대와 대학생 안보의식 함양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병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콘텐츠(전시, 공연관람, 체험사업), 시설, 장비 지원 ▲인적 교류 및 각종 협력 프로그램 기획·시행을 통한 발전 도모 등이다. 또, ▲대학생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군 체험행사 지원 ▲양 기관 발전 및 업무협약 유지를 위한 협업체 운영 등도 협약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영화학과 교수들은 조만간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13공수여단을 방문, 장병들에게 영화를 상영한 뒤 감독·출연진과의 대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학생창업지원단, ‘팔로우 페스티벌 데이’ 개최



우리대학 학생창업지원단은 4월 11일 학내 중문 광장에서 ‘창업동아리 팔로우페스티벌&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단 측은 각 창업동아리의 역량을 확보하고 재학생들에게 창업동아리 홍보 및 학생창업지원단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창업전문가 상담 부스를 마련해 재학생의 창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병행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총 600여 명의 학생이 찾아 창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으로 선정된 창업동아리 ‘500°C(공예디자인학과)가 유리공예 시제품 제작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찾아가는 학생종합 상담서비스’ 운영



우리대학이 4월 5일부터 ‘찾아가는 학생종합 상담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과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제도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진로, 심리, 병무, 취·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2층 휴게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총장 동정

정성봉 총장, 교직원 퇴임식 참석



정성봉 총장은 2월 27일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대학 교직원 정년퇴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2월 말 퇴임을 맞은 국어국문학과 김희숙·양희철 교수, 중어중문학과 윤순 교수, 정치안보국제학과 양병기 교수, 컴퓨터정보공학과 조상 교수, 음악교육과 김태훈 교수를 비롯해 직원 김성동 씨와 김준길 씨 등이 참석했으며, 정성봉 총장은 송공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가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정성봉 총장, 청주대-교원대 교류협력 협약 체결



우리대학 정성봉 총장과 한국교원대학교 류희찬 총장이 2월 20일 두 대학 간의 교육과정 및 자원공유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공동 운영 ▲교수교류 ▲학생 교류 및 상호학점의 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시설물의 상호이용 ▲기타 양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대학 정성봉 총장과 교원대 류희찬 총장은 “교육과정 및 자원 공유 등의 상호교류 협력에 협약하면서 앞으로 양 기관 간 학술 교류나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사학과 입과식 거행



우리대학 군사학과 입과식이 3월 24일 학내 청암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입과식은 국민의례, 입교자 신고 및 선서, 축사,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신입생 등 100여 명은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해 천안함 7주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우리대학이 3월 15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 우리대학 안영호 사무처장은 정성봉 총장을 대신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방문해 최현복 사무처장을 만나 특별회비 200만 원을 전달했다. 우리대학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00여만 원의 특별회비를 기부해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13년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청주대-(사)브링업 인터내셔널 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3월 3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사)브링업 인터내셔널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대학 측 정진주 학생처장, 김경식 교수, 이상철 대외협력실장과 브링업 인터내셔널 측 신승철 대표이사, 박선이 상임이사, 김미나 운영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비디오 콘텐츠 제작과 현지 언어 번역 등 국제개발 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사)브링업 인터내셔널은 국제구호, 개발, 교류를 실천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NGO단체로, 현재 필리핀, 캄보디아, 멕시코, 요르단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NEWS BRIEF

공예디자인학과, 태국 '젓가락 특별전' 참여



우리대학 공예디자인학과가 4월 25일부터 두 달간 태국 방콕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젓가락 특별전'에 참여한다. 이번 특별전은 '젓가락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젓가락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태국 한국문화원의 전시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태국은 한·중·일 3국과 달리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와 포크·나이프 등을 사용하는 문화, 젓가락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이다. 공예디자인학과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이규남(금속), 김준용(유리), 윤상희(옷칠) 교수가 개발하고 제작한 다양한 종류의 아트상품과 함께 학생들이 개발한 문화상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우리대학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월 22일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 2,75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입학식 선서, 총장 환영사, 학교 배치 증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입학식을 마친 후 신입생들은 국제프로그램과 학생취업지원 안내, 동문 특강과 학생 회장단 인사 등 이틀 동안 이어진 예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저학년 대상 '청석 브런치' 강좌 시행



우리대학이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대학은 최근 치위생학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석 브런치' 강좌를 시행하는 등 각 학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석 브런치' 강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식음료와 함께 지도교수와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1학년에게는 대학생활 적응을, 2학년에게는 대학생활 예절 습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세부적으로는 ▲학사, 장학, 취업, 교수학습개발 안내 ▲기본적인 대학생활 예절 ▲사제 간 소통의 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어교육센터 수료식 개최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가 1월 17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중국 152명, 베트남 13명, 일본 5명, 우즈베키스탄 4명 등 1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 중 41명은 우리대학에, 6명은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1~5등급 중 각각 다음 등급 과정으로 승급하게 된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학부에 입학하는 콩이(중국) 씨가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에 기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고, 장웨이닝(중국) 씨 등 25명이 장학증서를 받았다.

청주대-육군 제11탄약창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육군 제11탄약창이 상호협력 증진과 교육·연구 분야 등의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사학과 박효선 교수와 육군 제11탄약창 김동호 창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학술 연구 및 정보·학술교류 ▲육군 제11탄약창 추천자에 대한 장학제도 운영 ▲상호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약했다. 우리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총복권역 부대를 아우르는 최대 학군협약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6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거행



우리대학의 2016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 2월 17일 대학원·보건의료대학 청암홀에서 열렸다. 학사 2,494명, 석사 59명, 박사 13명이 학위를 받은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영어영문학과 이수진 졸업생이 영예의 수석졸업자로 선정돼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상을, 경제학과 이형규, 행정학과 김형래, 바이오메디컬학과 손보라, 회화학과 한경선, 간호학과 이혜미, 항공운항학과 양병모 졸업생이 각각 총장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51명도 각각 학위를 수여받아 총 4명의 박사과 15명의 석사, 32명의 학사를 배출했다.

청주대 펜싱부, 개인 및 단체전 2, 3위



우리대학 펜싱부가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회장배 전국남녀대학펜싱선수권대회 개인·단체전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펜싱부는 예매 단체전에서 체육교육과 조다윗(4학년), 최한새(3학년), 김재원(2학년), 권재선(1학년)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으나 한국체대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플러레 단체전에서는 체육교육과 지현석(4학년), 박재성(3학년), 박재우(2학년), 김지호(1학년)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플러레 개인전에서는 체육교육과 김지호(1학년) 선수가 3위에 올랐다.

2억9천만 원 상당 의료영상 S/W 기증받아



우리대학이 오후 국내·외에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기업 피닉스비전으로부터 2억9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우리대학 디자인·헬스케어 가치창출 특성화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기술교류회를 통한 성과로,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의 교류, 각종 산학연 사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 등 각종 협력이 가능한 가족회사가 됐다.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입학식 개최



우리대학 사회복지·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제58기 입학식이 3월 14일 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정성봉 총장과 김진홍 고위관리자과정 총동문화 회장,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사, 축사, 재학생 및 신입생 상호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성봉 총장은 식사를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진취적인 용기와 자세가 오늘날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주대학교는 전력을 다해 여러분의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선정



우리대학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2017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우리대학을 비롯해 3개 대학과 세종대 기술지주회사, 특허법인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며, 3년간 국비 등 약 10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각 대학 내 기술을 사업화하는 조직간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하나의 통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대학의 분산된 기술사업화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사업화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IP 창출부터 창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기업창업보육센터, BI기업 역량강화 네트워킹 데이 진행



우리대학 기업창업보육센터가 3월 30일 미래창조관에서 '충북지역 B(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충북도내 15개 대학의 17개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 BI 센터장 등이 참석해 창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우리대학을 졸업한 조현일 ㈜그린광학 대표 등이 핵심 성공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전문가와 기업의 1:1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이 밖에도 기업별 아이템 소개, BI기업 자유발언,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행사 참가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 학생들이 청주시 소재의 한 사찰에서 주관하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4년째 참가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익혔다. 한국어교육센터 학생 38명은 이날 오후 청주시 명장사(천태종)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체험 힐링캠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3시간여 동안 율농이와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다도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우리대학 한국어교육센터와 명장사는 2014년 문화체험 MOU를 맺고 1년에 8차례, 1차례당 40명씩 4년째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People News
PROFESSOR

**김경식 교수,
필리핀 바세코 지역 해외봉사활동**



영화학과 김경식 교수가 우리대학 해외봉사단장으로 세계 3대 빈민촌 중 한 곳인 필리핀 바세코(Baseco)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영화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1월 15~20일까지 6일간 이어졌다. 항공료를 포함한 체류 비용은 모두 학교 측이 부담했으며, 각 전공별 재능기부 형태로 주민들의 자체 생활 능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모성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모사업 책임자 선정**



레이저광정보공학과 이모성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모한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 출연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 책임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3년간 총 71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16개 광역 시·도에 24시간 상시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 책임자로 선정된 이모성 교수는 우리대학에서 2002년부터 청주지방방사능측정소장을 연임하며, 충청북도의 환경 방사능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경민 교수,
충북연극제 연출상 수상**



연극학과 장경민 교수가 충북연극협회와 청주연극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35회 충북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수상했다. 월남전 참전용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문제 등 개인의 삶이 파괴된

현대사의 기록을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작품에는 장경민 교수의 제자인 연극학과 재학생 9명이 함께 출연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장경민 교수는 6월 9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충북 대표팀으로 참가해 전국 대표 극단들과 경합을 벌이게 된다.

**박중학 교수,
충무학회 초대 회장 취임**



체육학과 박중학 교수가 충무학회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3월 7일 열린 충무학회 발기인 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박중학 교수는 "충북도의 무예진흥사업을 지원해 무예를 통한 지역 간 우호증진을 위한 학술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중학 교수는 1981년 네덜란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유도 사상 첫 세계대회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 감독, 2008년 대만 유도 대표팀 감독 등을 맡았고 2014년부터 다시 우리대학 교수로 근무 중이다.

**이애란 교수,
제14회 조경의 날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수상**



환경조경학과 이애란 교수가 3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창립총회 겸 제14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을 수상했다. 조경식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박종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박연재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애란 교수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설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총 13인의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승빈 교수,
충북예총 제23대 회장 취임**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가 2월 28일 선프라자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충북예총 이·취임식에서 한국예총 충북도연합회(충북예총)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임승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0개 시·군 예총과 10개 도협회가 함께하는 예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승빈 교수는 충북예총과 청주예총 부회장, 충북도의회 문화·예술 분야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충북연구원 자문위원, 충북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갑용 교수,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임명**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갑용 교수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BIAF)의 제10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윤갑용 위원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2일부터 2년이다. 윤갑용 위원장은 School of Visual Arts 대학원 3D애니메이션, 홍익대 미술대학 서양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우리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와 입학처장을 맡고 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0~24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CGV부천, 부천시청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태영 교수,
대한건축사회 명예회원증 수여**



건축학과 김태영 교수가 3월 14일 선프라자 신관 2층에서 열린 제51회 대한건축사회 충청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원에 게 전달되는 회원증을 수여받았다.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옥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조종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19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태영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 근대도시 및 근대건축 연구에 관한 지속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명예회원에 선정됐다.

**표원섭 교수,
국제문에 신인상 수상**



연극학과 표원섭 교수가 사단법인 국제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근현대잡지 <국제문예> 2016 겨울호에서 시 '고향집'과 '인연'으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다.

표원섭 교수는 "그동안 연극을 통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상의 독자들에게 말 걸기를 통해 행복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원준 동문,
롯데그룹 부회장 승진**



이원준(행정학과, 77년 졸업) 동문이 얼마 전 단행된 롯데그룹 임원 정기인사에서 신임 유통BU(비즈니스유통)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이원준 유통BU장은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공채를 통해 롯데그룹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롯데소프 대표이사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원준 부회장은 "청주대 동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자긍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대윤 동문,
첫 연출작 <그래, 가족> 개봉**



마대윤(영화학과, 2000년 졸업) 동문이 현실 속 가족을 소재로 한 휴먼 코미디 영화 <그래, 가족>을 개봉해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의 첫 연출작이기도 한 <그래, 가족>은 핏줄도 모른 척 살아오던 삼 남매에게 막내 동생이 예고 없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치열한 가족 단쟁이다. 마대윤 동문은 제24회 서울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마릴린 먼로의 초상>으로 데뷔해 <더 폰>, <방향하는 칼날> 등 많은 작품의 각색에 참여했다.

**이형민 동문,
육군보병학교 최우수 소대장 선정**



이형민(군사학과, 2014년 졸업) 중위가 4월 21일 육군보병학교에서 최우수 소대장으로 선정되어 '동춘상'을 수상했다. 군사학과 1기 졸업생이자 학사 60기로 임관한 이형민 중위는 완벽한 DMZ 수색

과 매복작전 유공, 특급전사 선발, 숭선수법의 리더십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동춘상'은 육군에서 베트남전 당시 안케페스 전투의 영웅 고(故) 임동춘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전국의 전투 소대장 중 최우수 소대장 14명(군단별 1명)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People News
ALUMNI

**윤승욱 동문,
신한신용정보 사장 선임**



윤승욱(경영학과, 78년 졸업) 동문이 3월 6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심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신한신용정보의 신임 사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신임 윤승욱 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승욱 사장은 1985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그간 신한은행 점포기획실장, 총무부장, 영업본부장, 충북본부장, 서울 기업그룹본부장과 인사 담당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기업 내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강섭 동문,
충북 옥천 부군수 취임**



신강섭(국어국문학과, 87년 졸업) 동문이 1월 1일자로 충북 옥천부군수에 취임했다. 1980년 청주시 모충동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충북도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과 사무관을 거쳐 2012년 충북 오송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 운영본부장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충북도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장, 행정국 청년지원과장 등을 두루 역임해온 신임 신강섭 부군수는 옥천군의 기업유치에 적합한 인물로 낙점되어 부군수에 취임했다.

**심우섭 동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취임**



심우섭(지적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연구원의 제1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심우섭 원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우리대학 지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거쳐 경일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LX 지적연수원 교수, LX 제주지역본부장과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심우섭 원장은 "국민 신뢰를 받는 공간정보 분야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규승 동문,
우리은행 업무지원그룹 상무 승진**



조규승(영어영문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2월 단행된 우리은행의 대규모 임원인사에서 업무지원그룹 상무로 승진했다. 조규승 상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상고와 우리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옛 한일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청주, 속초, 천안, 대전 등 충청남북도를 무대로 영업현장을 돌았으며, 청주지점장과 대전지점장을 거쳐 2013년에 대전충청남부영원본부장에 올랐다. 2015년 37년간의 영업생활을 마치고 우리은행 WM(자산관리)사업단 상무로 총책을 맡아왔다.

**이중훈 동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 취임**



이중훈(경제학과, 85년 졸업) 동문이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이중훈 본부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우리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괴산군지부장, 청주 신봉동지점장, 중앙본부 홍보국장, 중앙본부 인력개발부장 등을 맡아왔다. 이중훈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충북농협 임직원들과 초심의 마음으로 농업인과 고객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준식 동문,
근로복지공단 영원지사장 취임**



함준식(행정학과, 85년 졸업) 동문이 근로복지공단 영원지사장으로 취임했다. 함준식 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종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함준식 지사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해 공단본부 총무부와 조직관리부, 경기 고양지사 재할보상부장 등을 역임해왔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금의 종류 및 기부 방법

장학기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연구지원기금

청주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교수들의 학술연구 지원과 해외파견, 논문 저술 활동, 세미나 개최 등의 국내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서기금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의 도서 구입 및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약정방법

On-line 약정

청주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를 통해 약정내용을 직접 입력하신 후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Off-line 약정

청주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에서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동봉된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대외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이용 가능)

전화 약정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043-229-8012)으로 전화하셔서 직원과 직접 통화하여 약정하시면 됩니다.

교육환경 개선기금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기자재 구입을 비롯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지정기금

기부자 본인이 특정 학과나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소 등을 직접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일반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위임하는 것으로, 청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금 납부 방법

무통장 입금

기부자가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11-010540
(예금주: 청주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

CMS

약정서에 기부자의 계좌와 이체 희망일 등을 기재해 주시면 매월 대학발전기금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급여공제

기부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청주대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만 가능)

현물 기부

현금 이외의 자산도 양도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의 유형 고정자산/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의 권리 및 보험 등)

후원의 집 안내

가입대상

청주대학교의 발전에 동참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부인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방법

청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을 원하시는 업체는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cju.ac.kr>)에서 '후원의 집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파일함 안에 동봉된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신 후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대외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이용 가능)

가입혜택

- ① 소액세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② 청주대학교 후원의 집 현판(스티커)을 부착해 드립니다.
- ③ 각종 학교행사 시 후원의 집 이용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 ④ 홈페이지, SNS, 학교신문,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청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가족의 이용을 장려합니다.
- ⑤ 각종 학교 인채물 발송 및 기념품 지급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발전기금 및 후원의 집 문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TEL 043-229-8012
FAX 043-229-8015
E-mail 00121@cju.ac.kr



청주대학교 70년

새로운 조약이 시작됩니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국 4위
(2016년 대학정보공시, 재학생 5,000명 이상 대학)

취업률 총청권 1위
(2015년 교육부 공시,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청주대학교